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40호



##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86

불교 경전에 따르면 “우리가 부처이고 불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선 “하느님이 우리의 사원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신 말고 그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신의 사원이고 신이 그곳에 거하는 유일한 존재라면, 우리가 신이 아니고 누구란 말이겠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들 중 최고의 신으로서의 우리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고자 했든, 우리는 그 선택과 소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모르니까요. 사람들마다 선택이 다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을 알아 갑니다. 그는 겉보기에 나쁘고 비열하거나 소위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신성을 알아 가는 그들 나름의 방식입니다. 신과는 다른 모습을 선택함으로써 언젠가는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는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천국에 머물면서 신으로만 지낸다면 신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춰 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야만 다시 한 번 자신의 위대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며,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신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느끼면 그때가 바로 자신의 본성을 다시 기억하기로 선택한 시점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어서 기억해 내기 위해 선지식이나 수행

단체, 영적 스승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어디를 주시해야 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기억해 낸 친구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다름 아닌 지고의 존재, 신이라는 것을, 또한 무상의 존재가 이 몸 속에 거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상 신이 이 몸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신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용어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스승이 신에 대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줘도, 또 선지식이 신에 대해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해도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이나 안내자, 친구들은 이론을 얘기해 줘야 함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지구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론과 실제,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계 제자들이 나중에 기적을 행하고 천국을 볼 수 있었으며 창조주의 말씀인 신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천국에 올라가 천사나 하느님도 만날 수 있었지요. 하느님 아버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천사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만큼이나 우리도 위대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가 말했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때론 한두 명의 친구가 와서 우릴 상기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들이 올 겁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테니까요.



마음이 선량하다면, 우리는 쉽게 만물과 하나가 되고 불보살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0호**

출판일자 : 2003. 7. 19.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 2 다채로운 이벤트

호주/ 스웨덴/ 부르키나파소/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캐나다/ 미국

## 11/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비디오테이프/ 책

## 12 칭하이 데이 특집보도

## 16 이야기 세상

1993년 하와이 '칭하이 데이' 선포식에서 일어난 기적

## 17/ 20/ 41 감로법어

## 18 사제지간의 편지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20 신기한 감응

얼어붙은 가슴에 희망의 빛을

## 2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행의 비결

## 25 인터넷 속 작은 이야기

삶의 장애를 극복하다

## 26 단체명상

한 알의 씨앗이 그들을 주는 푸른 숲이 되기까지

## 27/ 31 지혜어록

출가에 집착하지 마라/ 내면으로 출가하라

## 28 제일선에서

신의 광명이 콜롬비아를 비추다/ 베네수엘라에 진리가 퍼지다

## 32 골라 뽑은 수행문답

말법시대에 얻은 수행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자

우리는 가장 운 좋은 수행자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인다/ 늘 지혜안에 집중하라

## 35/ 뒤표지 시

사랑의 바다를 항해하며/ 사랑의 발자국

## 36 수행의 길목에서

최고의 영적 의사/ 인생에서의 해탈

## 38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 39 스승님의 농담

근시인 탓에 / 정말 솔직한 이유/ 인내심이 대단한 개

## 40 크리스마스 특별기사

성탄을 맞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자/ 배움과 나눔의 시간

## 42 영화 이야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 43 예술과 영성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는 프랑스 시인 겸 화가

-안느 클레르 데프레즈(Ann-Claire Despretz)와의 인터뷰

## 47 사랑의 실천

프랑스/ 포모사

## 47 감사 편지

프랑스

## 50 매체보도

살생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며 / 동물보호를 지지한 표결

## 52 관음 웹사이트

## 53 전세계 연락처

## 뒤표지 안/ 무상예술

다양한 형태의 양면 겸용 조끼



## 님빈에 스승님의 사랑이 퍼지다

[바이런 베이] 최근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센터 동수들은 브리즈번 센터의 도움을 받아 아담하고 경치가 수려한 님빈(Nimbin)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州)의 노던 리버스 뒷산에 위치한 이 마을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다우림과 잘 보존된 원시림 지역으로 유명하다. 또한 많은 예술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삶을 살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의 님빈 마을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뒤 현재 입문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

당초 이 외딴 곳에 스승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행사는 놀랍게도 이전 그 어떤 강연회에서보다 큰 호응을 얻었으며, 스승님의 사랑이 행사장 주위에 가득 넘쳐났다. 참석자들은 비디오 시청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감동에 겨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스승님의 메시지를 통해 영원한 해탈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는데 현재 그들은 관음법문에 입문하게 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 모든 수행자들의 훌륭한 귀감



[바이런 베이] 어느 날 바이런 베이의 한 사형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얻은 놀랄 만한 개인적인 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사형은 일요일 단체명상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자전거로 3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를 달려올 정도로 신심이 대단하다. 그는 일요일마다 님빈 센터의 두 차례 단체명상 중 새벽 명상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2시에 바이런 베이를 출발한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이른 새벽 노던 리버스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희열과 평온함은 단체명상 참석 외에 얻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사형은 말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산 정상에 도착해 비탈을 내려갈 때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맞으며 숲의 고요한 분위기에 잠길 때다. 가끔 왈라비나 캥거루가 숲에서 뛰어나와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그 외엔 온통 은총이 충만한 평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노라면 관음법문 수행과 스승님의 가없는 축복으로 얻은 이로움이 더더욱 뚜렷해진다.

매주 토요일이면 먼 곳에서 와야 하는 그를 위해 동수들이 일요일 아침 일찍 데리러 가겠다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지만, 사형은 다른 동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항상 자전거 타기를 고수한다.

수행에 헌신적인 사형의 이러한 모습은 훌륭한 모범이자 매주 단체명상에 참여하면서 얻게 된 힘과 이로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귀감이다!

## 스웨덴 소식

## ‘내면의 조화(inner Balance)’ 박람회

[스톡홀름] 연례행사인 ‘내면의 조화’ 박람회가 2002년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일주일 전에 겨우 행사 소식을 접해 등록 기간을 넘긴 상태였지만, 스톡홀름 센터 동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최측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명상법에 대한 자료와 소책자를 무료로 나눠 주려는 우리의 계획을 들은 주최자는 곧바로 우리에게 부스 하나를 안배해 주었다.

행사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출판물을 둘러보고 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상영되는 스승님의 DVD 강연을 시청하느라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옆의 부스에서는 한 나이 지긋한 여인이 오오라를 정화하는 의식을 시연하고 있었다. 그녀는 4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천국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부스 뒷벽에는 예수와 성 마리아, 세례 요한,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바바지와 관음보살 상(像)이 걸려 있었다. 우리가 그녀에게 관음보살과 관음법문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자 그녀는 “이제야 나를 도와주는 천인(天人)이 왜 내게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라고 했는지 알겠다.”며 뿔 듯이 기뻐했다. 그녀는 견본책자를 가져가며 천인으로부터 보다 분명한 확답이 오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우리 부스를 기쁨 속에 방문했으며 그 가운데 1999년 스승님의 유럽 순회강연 중 스톡홀름 강연회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스승님이 언제 다시 강연하러 오실 건지 묻기도 했다. 그전 스톡홀름의 모든 동수들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 부르키나파소 소식

## 약진하는 와가두구 센터

[와가두구]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는 빠르게 번창하고 있는 도시다. 이 도시는 사하라 사막에 인접한 탓에 기후 변화가 매우 심해서 여름에는 보통 섭씨 40도를 웃돌곤 한다.

이웃 나라 토고의 지원으로 2002년 4월에 설립된 와가두구 정보센터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매일 2분씩 스승님과 그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했으며, 방편법을 배우고 관음법문에 입문하는 숫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센터에서는 명상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맛있는 채식요리 강습회를 여는



와가두구 정보센터와 명상센터.



등 이 동수들을 세심히 돌보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승님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 방편법 수행자들은 대부분 입문을 신청한다.

2002년 10월 18일 금요일 저녁, 정보센터 작업 팀은 방편법 수행자들

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센터 뒷마당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엔 70명이 넘는 구도자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신실한 질문 속에서 그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달빛 아래서 스승님의 심오한 가르침과 더불어 정성스레 마련된 맛있는 다과를 함께 즐기며 행복한 밤을 보냈다.



방편법 전수에 이은 단체명상.



와가두구 센터의 접수처와 독서실.

## 페루 소식

### 육체와 영혼의 향연

[리마] 스승님의 허락으로 올해 페루에서는 관음사자의 주관하에 두 차례의 입문식을 치를 수 있었다! 관음사자가 도착하자 페루 동수들은 수도 리마에서 약 60km 떨어진 칠카(Chilca)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이 행사를 개최하고, 선이 둘째 날 입문식을 갖기로 했다.

예비 입문자들 중에는 입문을 하려고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페루 북부에서 딸과 함께 입문하러 온 한 사저는 스승님의 강렬한 축복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장시간의 여행 끝에 도착한 한 예비 동수 또한 오랫동안 입문식을 기다려 왔기에 여행이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입문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그는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열망을 나타냈다.

선 행사 기간 내내 순수하고 행복하며 신성한 분위기가 충만했다. 동수들의 영혼은 단체명상을 통해 충분한 자양분을 얻었고 육체적으로는 주방 팀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로 큰 만족을 얻었다.

둘째 날 입문식이 끝나자 일부 동수들은 점심식사 후 잔디에 앉아 한담을 나누며 한가로이 여유를 즐겼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가세했는데, 심지어는 개들까지도 끼기도 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석자들 모두 이번 행사에 만족해해서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다음 선은 언제 있나요?” 하고 물을 정도였다. 선이 기간 동안 페루 동수들은 심신과 영혼에 크나큰 평화를 느꼈으며,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엄청난 천상의 사랑과 은총을 주셨다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페루 칠카에서 선이 행사가 끝난 후 몸과 마음, 영혼에 에너지가 충전된 참가자들.



선 행사 중 잔디밭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수들의 모습.



## 파라과이 소식

### 스승님께서 아름답고 영적인 파라과이를 축복하시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비디오 워크숍.

[아순시온] 파라과이는 온난한 기후를 가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나라로서, 도로와 거리를 따라 아름다운 꽃과 싱싱하고 푸른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도자기와 손뜨개 공예품이 유명한 이 나라는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모든 축복은 파라과이가 정말 신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파라과이 동수들은 최근 관음사자가 방문 중일 때 친척과 동수들을 초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싶어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들은 관음사자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서 스승님의 비디오를 상영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 당일 관음사자의 작은 방을 가득 채운 구도

자들은 스승님의 비디오를 열심히 본 후 그 자리에 남아 방법법을 배웠다. 정이 많은 한 사저는 손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동부 도시인 시우다드델에스테(Ciudad del Este)에서 몇 시간씩이나 걸려 오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관음사자의 주관 하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입문식이 거행되었다. 새로운 입문자들은 모두 좋은 체험을 했으며, 내면의 음류를 체험하고선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입문식 다음날 여럿이서 다시 찾아온 새 동수들은 예수의 사진을 보고 또 내면의 체험을 통해 예수 또한 관음법문을 수행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들은 또한 이 지역에 명상센터가 세워져 단체명상도 하고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도 전할 수 있길 소망했다.

## 우루과이 소식

### 몬테비데오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흥법 강연회

[몬테비데오] 대서양과 접한 백사장으로 둘러싸인 몬테비데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와도 매우 가깝다. 최근 이곳에서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강연회가 있기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 한 동수가 도착해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와 포스터를 배포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관음사자가 세 명의 사저들과 함께 도착해 준비작업을 도왔다. 이곳 방법법 수행자들의 도움으로 작업 팀은 유명한 문화시설인 아로마 몬테비데오 아테니오(El Ateneo de Montevideo)에서 구할 수 있었다.

강연회장은 대중들의 왕래가 빈번한 유명한 플라자 맞은편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단지에 큰 관심을 갖고 즉석에서 읽었다.

강연회가 열렸던 날에는 행사에 앞서 아르헨티나의 한 사저가 스승님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즉흥곡을 연주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에 청중들은 찬탄과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가피에 힘입어 강연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행사장은 손님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남아 방법을 배웠으며, 떠날 때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입문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 캐나다 퀘벡 소식

### 열렬한 호응을 받은 스승님의 가르침



[몬트리올] 2002년 10월 19일,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이 시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강연회장을 준비하고 꾸미느라 한창일 때, 퀘벡 시는 스승님의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가 도착하는 길을 포장이라도 하듯 내린 축복의 첫눈으로 인해 하얀 융단처럼 변했다.

춥고 녹녹하고 눈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들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 강연회장으로 끝없이 모여들었다. 동수들은 퀘벡 사람들 대부분이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걸 참작해 스

승님이 불어로 말씀하신 파리 강연을 골라 상영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몇몇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음사자가 답변을 돕기도 했다.

강연회가 끝난 뒤 몬트리올 센터 주방 팀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음식을 먹고, 또 스승님의 출판물과 예술작품들이 전시된 전시실도 참관한 모든 참석자들은 그곳에 전시된 아름다운 천의를 보고 특별한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참석 인원의 3/4 이상이 남아 방법을 배웠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명상 중에 좋은 체험을 했다.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이렇듯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줄곧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드렸다.

## 행사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



## 미국 오리건 소식

## 가슴 벅찬 감동의 오리건 교도소 홍법



[포틀랜드] 얼마 전 포틀랜드 클랙커머스 주립 교도소의 한 재소자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은 오리건 센터 동수들은 그 편지를 다시 교도소 당국에 전달했다. 편지를 읽은 교도소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동수들의 계획을 허락했다. 그 후 몇 달을 기다려 온 오리건의 사형사저들은 2002년 9월, 마침내 클랙커머스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을 위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교도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비디오 강연을 보여 주고 매달 둘째 토요일마다 방편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허락이 났다.

처음 열린 비디오 강연회는 세 차례에 걸쳐 한 시간씩 진행되었는데, 한 차례는 여자 재소자를 위해, 두 차례는 남자 재소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틀자마자 청중들은 스승님의 무소부재함과 축복을 느꼈으며, 장내엔 즉시 평화롭고 이완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강연회가 끝나고 한 사형이 방편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만 남으라고 설명하자, 놀랍게도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방편법 진수가 끝난 후, 한 여자 재소자는 자신의 내적 체험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체험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한 동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더니 계속 악수를 하면서 자신이 방금 체험한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렸다. 몇몇 기독교인 재소자들도 우리 사형들에게 다정하게 다가와 자신들이 겪은 감동적인 체험에 감사하며 스승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다시 시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클랙커머스 교도소 홍법에 참여했던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일으킨 기적과도 같은 감응을 목격하면서 무한한 가피를 느꼈다.

## 미국 뉴저지 소식

## ‘심신의 건강’ 박람회에서 빛을 보다

[뉴저지] 뉴저지 동수들은 뉴욕 센터의 지원을 받아 2002년 11월 3일 랜돌프 시에서 열린 제12회 ‘심신의 건강’ 박람회에 참가했다. 동수들은 부스에 스승님의 만세등과 그림들을 아름답게 배치하고 스승님의 각종 출판 간행물들을 전시하는 한편, 노트북으로 스승님의 강연과 음악 DVD를 상영해 많은 손님들의 이목을 끌었다.



케이블 TV를 통해 이미 스승님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 일부 방문객들은 관음법문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방문한 세 여성이 부스 중앙에 전시된 스승님의 ‘석동(石洞)’ 그림에 대해 똑같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 각자에게 관음법문을 소개하고 난 후 왜 이 그림에 대해 유난히 관심을 갖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첫 번째 여성은 그림에서 매우 강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고 대답했고, 두 번째 여성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빛은 신의 빛이에요.”라고 단정지었다. 세 번째 여성 또한 그와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말했다.



뉴저지 센터의 이번 2002 ‘심신의 건강’ 박람회 참여로 영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로서는 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대중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좋은 기회였다.

## ❁ 첨부 ❁

### 수행을 갈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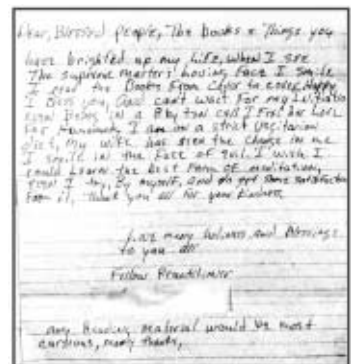
클랙커머스 주립 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보내 온 편지

(원문 영어)

축복받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보내 준 스승님의 경서와 물품들은 제 삶에 빛이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볼 때면 미소를 짓게 됩니다. 스승님의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저는 입문하는 그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 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에 갇혀 있긴 하지만, 인류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완전채식을 하고 있으며 제 아내도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명상법을 배우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스러운 활동과 축복에 사랑을 보내며  
한 예비 입문자 드림.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 첫 번째 산호세 비디오 강연회



[산호세] 많은 동수들과 비입문자들의 요청에 따라 산호세 센터는 2002년 11월 16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채식식당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갖게 되었다. 스승님의 경서와 사진을 비롯해 천의, 그림, 만세등 등 스승님의 아름다운 예술 창작품들로 가득한 식당 화랑은 고요하면서도 상서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발산해 참석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날 우리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1999년 6월 런던 강연인 '용감하게 삶을 맞서라'를 상영했다. 참석자들은 낮을 잃은 채 스승님의 진귀한 말씀을 경청한 후 채식식당에서 서로 편안하게 어울리며 유기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채식 다과를 즐겼다. 그 후 평온함과 기쁨에 가득 찬 분위기 속에 많은 열성적인 참석자들이 방법법을 신청했다.

그날 오후에는 은총과 평화로 충만한 모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스승님의 지혜에 감동되어 자신의 위대한 진아를 재발견할 준비가 된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지지에 힘입어 산호세 센터 동수들은 다음 번 비디오 강연회 개최를 고대하고 있다. 산호세에 또다시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예술과 영성의 가을 콘서트

[산호세] 캘리포니아 산호세를 감싸고 있는 계곡에 햇살이 가득 퍼지던 9월 중순의 어느 날, 다가오는 가을의 속삭임이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다. 가을 황혼이 매혹적이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 우리 마음과 영혼에게 내면의 본성으로 회귀하라고 손짓이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유명한 어울락 작곡가인 닛 응옌이 칭하이 스승님의 시를 음악으로 선보인 콘서트를 열었다.



닛 응옌이 스승님의 시에 직접 곡을 붙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영성 예술 애호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번 콘서트는 칭하이 무상사의 아름다운 시에 영감을 받은 작곡가 닛 응옌이 스승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2002년 9월 14일, 산호세 동수들의 도움 속에 장엄한 시와 음악을 선보인 이 공연에는 산호세 동수들의 친구와 가족들은 물론 캘리포니아 서부와 텍사스, 오클라호마의 동수들까지 참석했다.

행사는 청중들에 대한 따뜻한 환영의 말로 시작되었다. 이어





작곡가 닛 응엔과 가수 칸 응엔.

진 스승님에 대한 헌정사를 통해 사회자는 영성과 예술, 음악, 시, 박애 활동 전반에 걸친 스승님의 공헌에 찬사를 보냈다. 다음으로 스승님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담긴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상영되었을 때는 스승님이 직접 낭송하신 '지난날의 발자취 3' CD에 수록된 '부처의 슬픔'이 배경 음악으로 깔렸다. 스승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홀 안으로 퍼져 나가자 그날 저녁 내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

닛 응엔 씨는 세 곡의 자작곡을 공연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시 '부처의 슬픔'을 맑고 부드러운 가락으로 각색한 곡을 부른 데 이어 '그의 집을 지나며', '백발이 되어가네'를 차례로 공연하여 청중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았다. 스승님의 시는 닛 응엔의 곡과 멋들어진 조화를 이뤄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다음으로는 동수이자 유명 가수인 키유 로안 여사가 스승님의 시를 정교히 다듬어진 목소리로 낭송했는데, 역시 동수이자 저명한 연주자인 타 뉴우비엣 씨가 16현 어울락 지터를 반주해 그 감동적인 분위기를 한껏 더해주었다. 타 뉴우비엣 씨는 또 부드럽고 감미로운 '당신의 신을

빌려 주세요'란 곡을 솔로로 연주하기도 했는데, 그의 완벽한 지터 연주로 듣는 스승님의 시는 그 느낌이 독특하고 새로웠다.

이어서 '사랑의 멜로디 1', '사랑의 멜로디 4', '식어 버린 사랑', '두 마리 불사조' 등 스승님의 시를 닛 응엔의 음악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재능 있는 신인 가수 칸 응엔이 불렀다.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와 화려한 무대 매너는 청중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 주었다.

이날 저녁에는 닛 응엔이 지난 40년 간 작곡한 많은 곡들 중에서 흘러간 옛노래도 몇 곡 연주되었는데, 동수들은 그의 예술성과, 스승님과 관음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기리는 뜻에서 함께 열창했다.

공연 마지막 부분에서 닛 응엔은 칭하이 스승님과 그 시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 시간을 갖고, 이 영성 가곡들을 창작할 때 받은 스승님의 강력한 영향력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97년 몇몇 동수들과 함께 어울락에 살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스승님의 새해 선물을 전하러 갔던 일에 대해서 떠올렸다. 당시 그 선물은 헌신적인 예술 창작을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예술가들에 대한 스승님의 우정과 사랑의 표시였다. 그는 이날 저녁이 따뜻하고 뜻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서 자신과 스승님의 시, 대중들 간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킨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며 말을 맺었다.

가벼운 채식요리와 다과가 차려진 리셉션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잊지 못할 저녁의 여운 속에 잠긴 참석자들 사이에는 조화와 하나 됨의 감정이 솟아올랐으며, 격조 높고 완벽한 음악과 시를 통해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듯이 영혼이 성장하고 이해하는 변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콘서트에 참석한 동수들은 훌륭한 시와 음악으로 자신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치 영겁의 세월 동안 계절이 변화를 계속하듯이, 우리 또한 끊임없는 스승님의 애정 어린 인도와 보살핌 속에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콘서트가 끝난 후 함께한 닛 응엔과 칸 응엔 및 관음 가족의 즐거운 모습.



영혼을 울리는 스승님의 시 낭송에 푹 빠져버린 청중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영어>

CD-EG145 신을 사랑하는 자연스런 방법

2001. 6. 8.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이 CD에서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이완할 것과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항상 기억할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 다음은 이 CD의 주요 내용이다.

- 이완하기만 하면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
- 깨달은 사람의 특별한 특징은?
- 센터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더욱 깨달을 수 있는가?
- ‘자신이 부처가 아니라고 여기는 일’ 만이 진아를 볼 수 없게 하는 유일한 장애인가?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테이프

<영어>

738 소박한 삶

2001. 5.1-21. 미국 플로리다 센터, 스승님이 장주들에게 하신 말씀

740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자

2002. 5.10. 미국 플로리다 센터 스승님 생신 축하행사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한국어로 된 출판물을 주문하시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el: (031) 772-9250, (02) 577-2158

E-mail: chinghai@unitel.co.kr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G.htm> (한국어)



# 칭하이 데이 특집보도



## 미국 텍사스 휴스턴

## 미국 하와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께

저희 휴스턴 제자들은 스승님이 어디에 계시든 즐거운 칭하이 데이를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수행의 길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스승님께서 저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저희도 신실한 마음으로 스승님을 도울 것이며, 스승님께서 주위 모든 중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듯이 저희도 스승님을 항상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뤄 스승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메시지를 지구 곳곳에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모두의 사랑을 담아...

텍사스 휴스턴 제자들 올림.

2002년 칭하이 데이에 지역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은 단체명상을 마친 후 가족, 친구들과 함께 후말후히아 공원에 모여 스승님 조각상 주위에 사랑의 원을 만든 다음 세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도록, 진리를 이해하도록 조용히 기도했다. 그 후엔 성대한 채식 만찬을 즐기며 행복한 칭하이 데이를 보냈다.







# 칭하이 데이 특집보도



## 미국 캘리포니아

## 미국 중서부 연합

즐거운 칭하이 데이를 맞아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호세 채식식당에서 경축행사를 가졌다. 다음

스승님, 미국 중서부 각 센터에서 10월 25일 칭하이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스승님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를 빛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날에는 칭하이 데이의 정신을 기리는 선일 행사를 개최해 조용히 앉아 명상하면서 내면으로 또 한 번 경축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단 체명상이 끝난 뒤 각자 장만해 온 '일품 요리'를 나눠 먹으면서 노래와 율동도 함께 즐겼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스승님, 칭하이 데이 축하드립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건, 미주리, 오하이오 센터 드림.

## 캐나다 런던

## 칠레 산티아고

사랑하는 스승님께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맞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스승님을 사랑합니다.

칠레의 입문자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은 기쁨 속에 칭하이 데이를 함께 경축했다.

스승님은 저희의 정신적 지주이시며  
저희가 애타게 갈망하는 행복한 집입니다.  
스승님은 가장 고귀한 본보기를 보여 주심으로써  
저희도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장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전세계가 스승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길...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스승님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스승님, 칭하이 데이를 경축드립니다!





# 칭하이 데이 특집보도



에는 스승님을 향한 동수들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 페루

2002년 10월 25일, 페루 입문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칭하이 데이를 경축했다. 이날 경축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각 공연

## 파나마

파나마 동수들은 칭하이 데이를 맞아 단체명상을 하고 이후 경축행사를 가졌다. 단체명상 전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법상 앞에 아직 피어나지 않은 노란 봉오리의 장미꽃을 두 개의 화병에 담아 공양 올렸는데, 명상 시간이 끝나고 불을 켜자 놀랍게도 장미꽃이 모두 활짝 피어 있었다! 동수들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며 감동을 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 스웨덴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오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날을 맞아 스승님께 저희의 사랑을 전합니다. 입문하고 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아름다운 체험 모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것이 신과 진아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 멜버른

지극히 사랑하는 스승님께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지고의 평화와 사랑, 축복, 지원이 스승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날을 맞아 신의 은총 덕분에 스승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애정 어린 활동과 영적인 도움에 대해서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담아서

호주 멜버른 센터 동수 일동.

##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스승님께

온 인류가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화되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희 또한 스승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가르침과 최고의 모범을 배워 나날이 진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친구께서 행복한 칭하이 데이를 맞이하시길!



# 칭하이 데이 특집보도



## 대한민국 서울

한국 동수들은 올해 서울 센터에서 멋진 칭하이 데이 경축행사를 가졌다.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깊었던 순간은 지미 오스몬드의 노래

‘나의 어머니’를 다 함께 불렀던 일이다. 각 센터별로 이 노래를 부르고, 그 장면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해 사랑하는 스승님께 보낸 드린 일은 모든 동수들에게 있어 매우 특별하고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동수들은 이 노래를 성심으로 연습하는 동안 스승님의 사랑 어린 손길과 스승님을 향한 자신들의 깊은 애정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서울 센터 동수들은 이 노래를 부른 후 계속해서 다른 노래도 몇 곡 불렀다. 그리고 나선 젊은 동수들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는데, 전에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불러 주셨던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e Oak Tree)’이란 노래를 유머스럽게 각색한 짝막한 뮤지컬이었다.

동수들의 활기 넘치고 코믹한 동작에 청중들 사이에 줄곧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존경하는 스승님께

저희는 항상 스승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스승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승님, 행복하세요! 이 순간에도 행복하세요!

칭하이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자들 드림.

##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의 고갱 동수들은 10월 25일 저녁에 칭하이 데이를 경축하는 행사를 갖고 이어 선이 행사를 개최했다.

## 포모사

감사와 천상의 영광이 깃든 10월 25일, 포모사 동수들은 각 지역 센터에서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이어서 가진 10월 선이



행사에서 동수들은 이날의 훌륭하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세상에 퍼져 나가 칭하이 데이에 나타난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기원하며 명상했다.





1993년 하와이

‘칭하이 데이’

선포식에서 일어난 기적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뉴스그룹 기록

매년 10월 25일이면 산호세 센터의 동수들과 가족들은 칭하이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도 모두 모여 경축하고 있는데, 에드가 사형이 1993년 하와이 국제선과 칭하이 데이 선포 경축행사 전후로 겪은 기적에 대해 얘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하와이 국제선에 참석한 동수들이라면 선 행사가 있었던, 푸른 언덕과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식물원을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곳엔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선 행사 기간 중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려 온 세상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었고,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에 잠겨 영혼이 정화되는 고양감을 느꼈다. 선이 끝난 후, 칭하이 데이 선포식이 있으니 정장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동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모두들 비로 인해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닦을 겨를도 없이 서둘러 정장으로 갈아입었는데, 신데렐라가 공주로 변신하듯 눈 깜짝할 새에 말쑥한 신사, 숙녀가 되었다.

하지만 에드가 사형과 그 일행은 렌트한 차를 잃어버려 행사에 참가할 기분이 아니었다. 렌트한 차를 선 행사 첫날 작업 팀에게 빌려 줬는데, 선이 끝난 후 작업 팀이 돌려준 차는 원래의 그 차가 아니었다. 차를 찾아 공원 곳곳을 뒤흔들던 그들은 어떤 관음사자를 만

나게 되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 차를 타고 같이 파티에 참석하자고 초대했다. 그래서 일행은 관음사자의 차를 타고 우선 한 집에 들러 정장을 갈아입은 후 경축행사가 열리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이런 소동 끝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동수들과 손님들이 자리를 다 차지한 상태였고, 호법들이 행사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을 막는 바람에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조금 뒤 빈자리가 나서 모두들 성대한 파티에 참석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무슨 이유인지 테레사 사저만 자리가 없어서 혼자 문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공연 대기자 중 한 사저가 다가와 그녀에게 구두를 바꿔 신자고 부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저는 새로 산 흰 구두가 너무 작아 발이 굉장히 아팠던 참이었다. 발의 통증이 공연에 지장을 줄까 봐 걱정이 됐던 그녀는 스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흰 구두를 신고 있는 테레사 사저를 발견했던 것이다. 신기하게도 바꿔 신은 신발은 서로에게 딱 맞았다. 물론 테레사 사저는 나중에 행사장에 들어갔다. 스승님께서 이 사저를 뒤에 남겨 놓으셨던 것은 다른 사저를 돕기 위한 안배였던 것이다.

파티가 끝난 후 에드가 사형은 일전의 그 관음사자를 찾았으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형과

그 일행은 자신들의 차를 찾는 ‘임무’를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작업 팀이 차가 있는 곳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자정이 지나자 대다수 동수들은 연회장을 떠났고, 일행은 돌아갈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들이 잃어버린 차가 호텔 문 한쪽에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그 차를 몰고 온 사람을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차 문을 열어 보니 다행히 잠겨 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비상 열쇠까지 차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순간 그들은 스승님의 축복과 보호가 늘 함께함을 깨닫고는 감사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우선 차를 찾긴 했지만 그 차를 몰고 온 사람이 차가 없어진 걸 알면 걱정할까 봐 에드가 사형 일행은 감히 차를 몰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명은 차를 지키고 나머지는 운전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호텔을 샅샅이 뒤졌으나 짐을 꾸리고 있는 사자들만 몇 명 있을 뿐, 그 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들은 그 차를 타고 호텔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일행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그 누구도 행사 전에 옷을 갈아입었던 집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간 차를 운전하고 가던 에드가 사형은 문득 저 멀리 앞의 차 한 대가 계속해서 자신들과 같은 방

향으로 돌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운전사가 동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자 사형은 그 차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러다 잠시 후 에드가 사형의 차가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러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앞서 가던 그 차도 주유소에 들르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아니나다를까 우리 동수였고, 운전사도 마침 하와이 동수였다!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도 우리가 옷을 갈아입었던 바로 그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스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길을 안내할 동수들까지 정확히 안내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그 집에 무사히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는 그 동수의 차를 따라 선 행사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공원에 도착해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차를 몰고 다른 입구를 찾고 있던 참에 차 한 대가 잠긴 문 앞에 섰다가 그들처럼 돌아 나오다 도랑에 빠지는 게 보였다. 에드가 사형과 동수들이 황급히 차에서 내려 도와주러 가 보니 그 차 역시 동수의 차였다. 모두의 힘을 모은 끝에 차를 겨우 꺼낼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차 주인이 밤에도 열려 있는 유일한 입구를 알고 있어서 세 대의 차는 바로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단 몇 시간 새 잇달아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로 인해 에드가 사형과 다른 동수들은 무소부재하신 스승님이 항상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 감로범어

청하이 무상사/ 1997. 9. 13.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02

우리가 지극히 지혜로워지면 순수해집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다시 배워야 할 것도 없고, 탐구하고 싶은 것도 없으며, 알고 싶은 것도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괜찮다는 것, 신이 모든 것을 안내하신다는 것만큼은 알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워집니다.



##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 투이엣 사저/ 독일 함부르크

사랑하는 스승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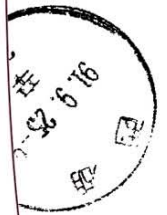
이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든 이 순간, 강렬한 사랑의 감정과 스승님께 감사드리고픈 마음이 솟구쳐 올라 세속적인 방식으로나마 이렇게 제 사랑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2002년 4월 2일 입문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 태어났지요. 스승님은 물질과 영성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은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두뇌로 분석하기보다는 지혜를 사용하라 가르쳐 주셨고 명상을 게을리할 때는 열심히 정진하라 격려해 주셨으며, 고통스러울 때는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마음이 저를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애고를 없애려고 하면 두뇌는 무의식 중에 또 다른 형태의 애고로 저를 속이지요. 그러나 스승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나면, 스승님은 그 즉시 저를 씻어 주시고, 늘 제 곁에서 용기와 위안을 주십니다. 가끔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아버려! 모든 것을 놓으면 너는 가볍고 자유로워져 더 높이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놓아 버리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도로 잡아당기곤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면 스승님은 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진실로 당신의 자비가 없다면 제 영혼은 내면의 평화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명상함으로써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늘 단 한 번만이라도 스승님과 함께하는 단체명상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 상태로는 긴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 스승님께서 전세계 동수들과 가지신 인터넷 화상회의는 제게 있어 스승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침대에 앉아 함부르크 센터에서 화상회의가 열릴 날을 꿈꿔 왔





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센터에 가서 스승님을 뵙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스승님께 젊었을 때부터 소중히 여겨 온 노래를 불러 드려 제 사랑을 보여 드리리라 생각했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이제야 보고 이해하고 믿게 되었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끝없는 갈망을 채워 줄 이 길로 인도하셨음을. 나, 이제야 보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 이 사랑으로 평생 당신께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스승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다음날 아침 연락인에게서 나흘 뒤에 함부르크 센터에서 스승님과의 인터넷 화상회의가 열릴 거라는 전화가 왔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정말 멋지십니다! 다시 한 번 스승님은 제 바람을 이뤄 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6일, 그날이 되었지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센터와 동수들의 세심한 안배 덕택에 전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나머지 이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죠!

스승님, 그거 아세요? 당신의 사랑이 강렬하고도 부드럽게 제 모든 세포 속에 흘러오는 것을 느낀다는 것ですよ. 저는 그 기분에 푹 잠겨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님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에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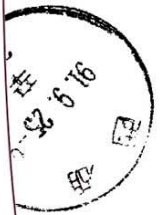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릴 뿐이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도 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우리도 위로받았으니...”

고해에서 영원히 해탈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소서.





# 얼어붙은 가슴에 희망의 빛을

중국 본토 동수



스승님을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세세생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본다면, 하루하루가 사랑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스승님의 사랑을 증명해 준다.

만리장성 북쪽 지방의 이른 가을. 한없이 드넓고 맑은 하늘과 온화한 바람은 여행하기에 그지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래서 나와 몇몇 동수들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지역을 관광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서로 사는 곳이 달랐던 우리는 우선 가까운 근교에서 모였다가 함께 관광지로 이동하기로 했다. 근교를 향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나는 우뚝 솟은 산등성이를 따라 구불거리는 산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경치가 굉장히 수려했다. 나는 바깥 경치를 즐기려고 마음먹었지만 버스에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삼매에 들었다.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에 폭 감싸인 내 마음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마치 바깥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버스가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한 곳에서 급커브를 하면서 갑자기 버스가 비틀거렸다. 그 순간 나는 낮익은 갈색 승복에 대나무 삿갓을 쓴 비구니가 버스 옆을 충충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버스가 절벽 안쪽으로 바짝 붙어 가고 있는 데다 길에는 사람이 지나갈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순간 나는 바짝 긴장했다. 잠시 후 나는 금방 본 광경이 지혜안으로 본 체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 비구니를 만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스승님께 기도드렸다.

근교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동수들을 찾을 마음이 시들해졌다. 비가 좀 내리고는 있었지만 바람이 없어서 나는 먼저 산에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하늘은 잔

뜩 흐렸지만 나의 내면은 찬란하게 빛나고 몸에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용한 오솔길을 때론 세차게, 때론 부드럽게 오락가락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고 있노라니 뭐라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솟구쳐 올랐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산 깊숙이 들어간 나는 한 사형의 집을 빌려 혼자 조용히 스승님의 가피를 만끽하며 지내다가 다음날 아침에서야 다른 동수들에게 연락했다. 그때까지 나는 그 비구니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동수들이 곧 결집하자 우리는 계획대로 관광 명소로 출발했다.

정말이지 기연(奇緣)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스승님의 안배는 완벽하고 빈틈이 없으셨다. 우리가 관광지로 들어가는 산 입구를 지날 때 갑자기 한 사저가 말했다. “산밑에 있는 저 마을에 좀 들렀다 가요! 거기 있는 작고 오래된 절에 제 사촌 언니가 출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을로 향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비구니가 매우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벌써 3년이나 절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도 거의 왕래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산문(山門) 밖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문을 두들겨 봤지만 안은 조용했고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뒤뜰로 나 있는 문을 빙빙 돌아보았다. 그 사저가 수차례나 소리쳐 불러 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급기야 사저가 사촌의 속명을 부르자 그제서야 키 큰 비구니가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바로 어제 내가 지혜안으로 본 그 비구니가 아닌가! 게다가 낮익은 그 대나무 삿갓도 쓰고 있었다!

동수들이 그녀에게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듣는 듯 마는 듯했고, 사촌의 체면도 아랑

곳하지 않은 채 동수들의 조언에 단호히 반박해 모두들 실망스런 마음에 고개를 저었다. 그 비구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자신은 줄곧 ‘여여부동(如如不動)’ 했으며, 오로지 ‘바른 마음이 법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기에 수행하는 데는 어떠한 법문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스승님이 내게 주신 체험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나는 포기하지 않은 채 사저들이 그 비구니와 얘기하는 동안 줄곧 오불을 외며 스승님께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 절에 잡초가 무성하고 뒤뜰 네 귀퉁이마다 귀신을 쫓는 노란 천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이 비구니가 큰 절망에 빠져 있으며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출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듣고 싶은지 의향을 물어봤다. 가부좌를 하고 방석에 조용히 앉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소견을 대략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만약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수행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면 비구·비구니와 재가자의 삶에는 외형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갈등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해탈법문을 찾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을 ‘여여부동’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음을 터트리며, 사기 결혼에서 빠져 나온 후 여생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비구니가 된 이야기, 이 절을 맡아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타협하고 법회 때마다 재정적인 다툼을 처리해야 했던 일, 그러다 신도들이 아무도 시주하지 않아 비참한 상황

에 처하게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세월 겪었던 고통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통곡 어린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점차 그녀의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는 어느새 한가족처럼 앉아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녀가 몸을 잘 돌보지 않아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을 보고는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모아 그녀에게 주면서 건강을 잘 돌보고 좀더 자신을 사랑하길 희망했다. 그녀는 돈을 받으며 “오늘 받은 이 돈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시며, 여러분에게 아무런 사심도 없다는 게 느껴진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다.

스승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이 비구니의 마음을 녹인 순간 그녀의 눈은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늘 혼자서 삭막하게 살던 그녀였는데, 우리가 떠날 때는 함께 산문 밖을 걸어나와 이야기하고 웃으며 1km 정도를 걷고서도 우리와 헤어지기를 아쉬워했다.

나는 동수들 하나하나가 스승님의 손에 쥐어진 장기알로서 스승님의 세심한 안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 비구니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스승님, 모든 것이 성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당신의 안배입니다. 스승님은 정말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하고 계시는군요!



## 감로법어

청하이 무상사/ 1997. 9. 13.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02

지혜가 있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신께 맡기는 사람에게  
게는 모든 일이 바람 불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애쓸  
필요를 못 느끼지요.





## 수행과 물질의 관계



### 수행의 비결

청하이 무상사  
1992. 10. 10.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78



때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하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생명과 청렴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론 너무 돈이 많아도 오히려 해가 되어 우리의 도덕성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몸을 잃는 것은 별게 아니지만, 돈 때문에 도(道)를 구하는 마음을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출가의 길은 비교적 넓고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재가자의 길은 좀 좁고 가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재가자의 경우엔 타인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고, 서로 오염시키거나 명예를 놓고 다투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재산이나 세속적인 인간 관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지요. 또한 남편이나 아내, 재산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처리하는 법을 모르면 나쁜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일정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세속적인 돈이나 명예, 재산, 애정, 욕망, 정욕 등 그 모든 것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나무토막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A, B, C'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빨리 배우고 학습의 진보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다 A, B, C 단계를 넘어서면 글자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매일 공부해도 별다른 진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A, B, C를 시험 볼 필요는 없지요. 결코 글자를 모른다거나 진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수준에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재산이나 감정적인 관계가 왜 수행에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감정에 미혹되어 신보다 세상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의 등급은 높지 않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저울의 한쪽이 무거우면 자연히 밑으로 기울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양쪽의 무게가 같다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감정 관계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행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지나치게 고민스럽고 걱정한다면, 자신이 아수라 세계의 감정의 밧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또 재산을 좀 잃어 상심한다면 그 역시 아수라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손실로 인해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손실이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손실인데도 그 재산에 계속 연연해 지

나치게 걱정한다면, 그때 자신의 수준이 아직 높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아서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하면서 24시간 내내 주의해야 합니다. 2시간 반 명상하는 시간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매 순간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등급이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을 때 자신의 반응이 어떤지, 예고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지 살피고, 남이 우리 물건을 가져가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힐 때 우리의 반응이 격렬하진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자신의 예고가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재산과 감정,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는 지나친 탐심이나 집착과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 모두 자신의 감정과 가족,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그것들을 놓지 못한다면 서둘러서 관음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른바 출가자들이란 세속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며 놓치지 않으려는 것들을 완전히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놓아 버린다고 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울며불며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알고 있으며 진정으로 그것을 놓고자 원합니다. 물론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나 친구, 친척들과 헤어지게 되면 조금 슬플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떠나

고 싶어하지 않거나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 관음의 중요성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우리는 최소한 하루 한 시간 관음을 해야만 세상의 영향을 벗어나고 정신적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음을 아주 조금만 해도 기분이 즐거워지지만, 완전히 즐겁지는 않겠지요.

한 시간 내내 관음하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20분만 명상해도 상황이 호전되어 육신이 안정되고 정신 또한 고양됩니다. 그리고 나신 육체에 아무런 감각도 없어지는데, 그때는 처음의 들뜨고 불안정하던 기운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 도와 함께 수행하라

아주 오래 전에 관음법문을 수행하던 사람들에게 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가 수행할 때 아주 짧은 순간, 예를 들어 2시간이나 30분, 수십 분만이라도 도(道)와 접하기만 하면 영겁의 세월 동안 쌓아 온 무거운 업장을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또한 깨달은 스승의 강연을 듣거나 얼굴을 한 번 보고, 혹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단체명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스승을 직접 만나지 못하거나 직접 그 강연을 들을 수 없다면, 그의 경전을 읽거나 강연 녹음을 듣는다면 그 스승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도 된다고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이며 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세세생생 두텁게 쌓인 업장을 씻고 한편으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져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에도 흥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 선지식(善知識)을 가까이하는 이로움

때로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수행의 이로움을 일깨워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 그리 높지 않은 중생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의 기운이 우리 등급을 조금씩 떨어뜨려, 나중에는 그들처럼 세상일과 세속적인 것들에 바쁘게 얽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식, 불보살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이로움이 큼니다! 내 말은, 동수들이나 깨달은 스승과 함께하는 게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보거나 말을 들어서 유용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그들의 수행의 기운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수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들과 가까이만 있어도 아주 편안해지고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더 이상 세속적인 일을 생각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매일 깨달은 스승을 보라고 말합니다. 매일 볼 수 없다면 최소한 2, 3일에 한 번 보러 가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일주일마다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2, 3주에 한 번,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한 달에 한 번은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도 어렵다면 1년에 한 번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평생에 한 번은 보라고 했지요! 그렇게도 볼 수 없다면 죽는 순간에는 스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스승이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러 올 테니, 결국엔 스승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 스승과 어떤 인연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기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스승과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해서 스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승과 나이가 같고 같은 나라, 같은 마을에 산다 해도 반드시 스승의 축복을 받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어울락에 사는 동수들처럼 스승을 볼 수 없는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 스승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화신 스승은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스승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수행이라 할 수 있지요.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 깨달은 스승과 마음으로 함께하라

우리의 마음이 선량하다면 만물과 하나가 되고 불보살과 통하는 게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스스로 주변에 담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보살이 그 벽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장애의 벽을 만든 거죠. 그러니 부처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하지요. 그렇게 한다면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도 공간의 벽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석가모니불 당시에 한 제자가 기원정사에서 아주 거대한 개미를 한 마리 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 부처가 오셨다 가시며 이곳에서 설법하셨건만, 이 개미는 아직도 여기에 개미로 남은 채 개미의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은, 사리불이 전생에 독사였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같은 비디오테이프를 참조할 것.) 오늘 처음 듣는 얘가지요. 우리는 사리불이 세세생생 덕망이 높아 부처의 십대 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 설마 그가 전생에 독사였다가 석가모니불과 맺은 좋은 인연 덕분에 석가모니불이 성불한 후 제도를 받았으리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뱀으로 지냈을까요? 경전에서는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수천, 수만 년을 그 모양으로 살았으나, 일단 마음이 열리자 업장도 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달은 스승에게 배우고자 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생 동안 축적한 나쁜 생각과 모든 집착,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면 세세생생 쌓아 온 업장도 소멸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불보살에게 가까이 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빛을 보고 부처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 삶의 장애를 극복하다

## - 당신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시나요?

인터넷에 올려진 에세이에서 퍼옴 (원문 중국어)

### 시냇물의 여정

작은 시냇물이 멀리 높은 산에서 흐르고 흘러 많은 마을과 숲을 지나 드디어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껏 셀 수 없이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 왔어. 이 사막을 지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사막을 건너려 하자 서서히 진흙과 모래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냇물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모두가 허사임을 깨닫자 몹시 당황스러웠다. “아마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난 전설 속의 큰 바다에 갈 수 있는 운명이 아닌가 봐.” 그녀는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때 어디선가 굵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산들바람이라면 사막을 건너 강에 도착할 수 있지.”

그것은 사막의 목소리였다. “산들바람은 날 수 있지만 난 날 수 없잖아요.” 납득할 수 없었던 작은 시냇물이 대답했다.

“그건 네가 너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야.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산들바람 속으로 너를 증발시켜 봐. 그럼 너는 이곳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단다.” 사막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의 나를 버리고 산들바람 속으로 사라지라고?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녀는 여태껏 그러한 걸 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지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작은 시냇물이 물었다.

“산들바람이 사막 너머로 수증기를 품고 가 적당한 곳에 비로 뿌려 주면, 그 비는 강이 되어 다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사막이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제가 여전히 지금의 저일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네가 강이 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든, 너 자신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란다. 너는 자신이 시냇물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만, 그건 너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야.” 사막이 대답했다.

이때 작은 시냇물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강이 되기 전에 자기를 높은 산 중턱까지 데려다 준 것도 산들바람이었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리고 거기서 비가 되어 땅 위로 떨어져 지금의 모습이 된 것까지도. 그녀가 용기를 내어 산들바람이 벌린 두 팔로 뛰어들면서, 그녀 인생의 다음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작은 시냇물의 경험과 비슷하다. 만약 진, 선, 미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에고와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이다.

아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포모사의 지엔 사형은 1996년 말, 사업차 서아프리카의 토고에 오게 되었다. 당초 그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아프리카에 머물 생각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5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지엔 사형과 이 지역 동수들은 토고를 비롯해 이웃 나라인 베닌과 카메룬, 부르키나파소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홍법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아프리카에 머물게 된 일에 대해 사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1년 간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아프리카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관음사자가 토고에 왔을 때 저는 ‘힘 닿는 대로 홍법을 돕겠다. 하지만 여기 오래 머물 생각은 없으니 연락인은 말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하지만 상황은 제 계획과는 달리 진행되더군요. 처음 홍법을 시작했을 때는 이웃 나라를 여행하며 전단지와 견본책자를 나눠 주고, 때론 길거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토고 입문자들이 몇 명 생겼습니다.

점차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할 만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의 축복과

인도 덕분에 저는 홍법 일에 참여하도록 그곳의 젊은 동수들을 격려했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대인 관계에도 요령이 생

## 한 압의 씨앗이 그들을 주는 푸른 숲이 되기까지

관음사자 정리

기도 그들은 현재 다른 나라에 가서 스승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돕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명상 센터가 차례로 건설되자 우리는 그 젊은 동수들과 함께 스승님의 경서를 전시할 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보센터가 문을 열고 난 뒤에는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센터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하루에 3,

4분씩 라디오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방송 내용을 바꾸고 있지요.

이 외에 스승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V 방송입니다. 한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TV를 통해 스승님의 강연을 방송하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그동안 있었던 오해들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승님을 소개할 방법은 아주 많은데, 예를 들어 게시판에 감로법어를 붙이는 것도 그 한 방법입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급하는 일을 하나의 창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잡일이 아니지요.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지혜를 주셨고, 단 몇 마디 말씀으로도 무한한 영감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동안 어려움은 없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동안은 정말 포모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던 중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순간 아프리카에 더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요. 아프리카에 왔을 당시 신희이었기 때문에 포모사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동수

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토록 좋아하고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을 그토록 갈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은 한쪽으로 미뤄 놓게 됩니다.

요 몇 년 동안 저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제 성격이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 좋은 편은 아닐지라도 전 저 자신이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이제 제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인 식량과 같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동수들도 저처럼 스승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기쁨과 평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아프리카를 어둡고 미개한 대륙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건 물질적인 면만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곳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러한 영혼의 풍요로움에 따라 물질적인 편안함도 따라온다는 걸 모르는 거지요.”

오늘날 아프리카의 거리를 걷고 있노라면 이러한 번영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영적·물질적인 발전을 대단히 열망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은 흡사 25년 전의 포모사와 같다. 또한 살아 계신 스승에 대한 깊은 열망도 느낄 수 있는데, 스승님이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아프리카를 축복하고 계시기에 더욱더 많은 이곳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리라 확신한다.

## 출가에 집착하지 마라

청하이 무상사/ 1999. 12. 27. 태국 방콕 선육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682

진정한 출가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사람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일세해탈’의 희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깨닫도록 돕는 것이지요. 출가자라도 괜찮고 재가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해도 동료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옷을 보세요. 출가자의 복장은 아니잖아요. 마음에 집착이 없기만 하다면 여러분도 재가자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가를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수행이 진보해서 심신이 모두 즐겁고 자유로우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축복을 즐기도록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출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상황이 어떻든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결코 출가가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가의 이상은 훌륭하고 고상하며, 나도 이를 지지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재가자의 옷을 입어도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입니다. 우리는 걸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신의 광명이 콜롬비아에 비추다

영국 런던, 데이지 헌터 사저 구술/ 관음사자 기록



보고타 페다고기카 대학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



INNCA 대학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후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남은 참석자들.



많은 손님들이 국립대학 강연회장 밖에 설치된 경서 전 시대에서 수행 정보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

나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났고 10대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성장했다. 1999년 런던에서 입문을 한 뒤로 나는 자연스레 나와 인연이 깊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관음사자가 비디오 강연회를 하기 위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으로 마음이 들떴다.

관음사자가 도착하기 2주일 전, 나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로 출발해 행사를 준비했다. 보고타 소재 대학들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싶었던 나는 나중에 도착한 관음사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 좋게 어느 날 식당에서 한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보고타 페다고기카 대학(Pedagogica University)에서 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승님을 소개하는 DVD를 상영할 수 있었다. 이 교수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여러 대학 관계자 중 마리아 유제니아 교수는 스승님을 소개하는 짧은 DVD를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곤 그 후 강연회 준비도 전심을 다해 도와주었다. 전단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찾는 일을 도와주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행사 소식을 이메일로 알리고, 강연회 당일에는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돕기도 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그녀도 방편법을 배웠다.

하루는 한 남자가 마리아 교수의 사무실에 들어와 함께 있던 우리에게 인사를 했는데, 강연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마침 관음사자는 홍범 자료가 들어 있는 컴퓨터 파일을 꺼내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마리아 교수에게 부탁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파일이 너무 커서 곤란해지자 남자는 그 즉시 파일 크기를 줄여 주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가 컴퓨터 전문가이며 우리를 도우려 때맞춰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 스승님의 힘이



언제 어디서나 돕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이 남자도 아내와 함께 강연회에 참석해 방편법을 배웠다.

페다고기가 대학 강연회는 대단히 멋졌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웠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입문하기 위해 완전채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강연이 끝난 후 얼마 안 있어 채식 식당에서 알게 된 아르투로 그루에소라는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INNCA 대학의 지미 소토메이아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딸이 많이 아파서 그가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나는 그에게 견본책자를 주면서 딸의 병상에 놓아 두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강연회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딸아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의 마음 또한 편안해질 수 있었다.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그 어린 소녀를 돌본 것이다.

소토메이아 교수는 스승님에 대한 간단한 약력이 담긴 DVD를 본 후 흔쾌히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리하여 우리는 INNCA 대학에서 두 번째 강연회를 열게 되었다. 이 강연회에는 젊은 학생들과 교수 및 수녀를 비롯해 대학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모두들 눈과 귀를 모아 스승님의 강연을 경청했다. 강연이 끝난 후엔 수녀를 비롯한 대다수가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소토메이아 교수는 중국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청나라 풍의 변발을 하고 중국어 공부에도 열심이였다. 그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승님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다. 강연회가 끝난 다음날, 그의 대학을 다시 방문한 우리에게 그는 대학의 상징이 새겨진 서진(書鑑)을 기념으로 주었다. 우리는 그 전에 소토메이아 교수를 통해 전해 들은 ‘즐거운 믿음과 희망의 어린이 기금(Fundacion Infantil Alegria Fe y Esperanza: FINAFES)에 브라질 동수들이 보내 온 미화 200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었는데, FINAFES는 게릴라전으로 고아가 된 떠돌이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로서 우리의 기부금 중 30만 페소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부식비로 쓰이기로 했다. 우리가 성금을 갖고 대학에 도착했을 때, 이 단체의 담당자는 그곳 어린이들이 2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실정을 토로하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게 되었군요!” 하고 매우 고마워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소토메이아 교수도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 소토메이아 교수에게 감로범어가 들어간 중국 매듭과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를 선물했더니 기쁘게 받았다. 그의 아내는 거실에 매듭을 걸어 두고 날마다 불찬 테이프를 틀어 놓았으며, 그의 어린 딸은 스승님을 따라 불찬을 부르기도 했다. 이들 부부도 훗날 방편법을 배웠다.

세 번째 강연회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크고 이름 높은 내셔널 대학(National University)에서 열렸다. 이 대학의 의과대 학장인 마르타 교수는 이미 페다고기가 대학 강연회 때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바 있어서 내셔널 대학에서 다음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했다. 세 번째 강연회 역시 앞서 열린 두 번의 강연회와 마찬가지로 열렬한 호응을 얻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우리는 콜롬비아에서 2주 간의 짧은 시간 동안 3차례의 흥법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나는 신의 은총이 콜롬비아에 흐르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으며, 스승님께서 비를 통해 이곳에 사랑을 퍼붓고 계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나는 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비가 올 때면 나를 기억하세요! 비는 천국에서 오는 축복과 같으며, 천국과 지상을 잇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스승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흥법을 마치고 베네수엘라로 향할 때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 나라를 정화하는 듯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은 나의 조국은 지금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과정은 속도는 느리지만, 살아 계신 스승의 인도와 도움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스승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 베네수엘라에 진리가 퍼지다

영국 런던, 데이지 헌터 사저 구술/ 관음사자 정리

콜롬비아에서 세 번의 홍법 강연회를 마친 우리는 관음사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도착해 계속 홍법 활동을 펼쳤다. 나의 남편도 이때 영국에서 건너와 돕고 나중에 방편법도 배웠다.

먼저 우리는 푸에르토 피리투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스승님의 은총 덕분에 적절한 강연 장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건물엔 TV 마리나 방송국이 본부를 두고 있었다. 우리는 강연에 앞서 이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 진행자인 해리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청중들의 관심이 담긴 많은 질문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 걸려 온 열렬한 문의전화 등으로 인해 이 방송은 깨달음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우리는 인터뷰를 마친 뒤 나중에 강연회가 끝나면 이 방송국에서 스승님의 TV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나는 통역을 하는 동안 화신 스승님이 저 위에서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강연회가 끝났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보슬비를 바라보며 나는 이 비가 우리가 방금 심은 영성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 스승님께서 베네

수엘라에 뿌려 주시는 감로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푸에르토 크루즈(Puerto La Cruz)에 도착해 다시 한번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한 숙녀는 강연 장소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녀는 전에 육신의 모습을 한 화신 스승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스승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우리와 동행하던 날, 그녀는 스승님의 위대한 힘을 목격했다.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 속에 해변에 위치한 큰 호텔에서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지방 방송국인 TVO와 접촉해 인터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푸에르토 크루즈 강연회가 있던 날, 호텔 직원들은 강연장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고, 손님들도 많이 참석했다.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고 난 후, 모두들 우리가 준비한 채식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남아 방편법을 배웠고, 입문을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다. 호텔 직원 몇 사람도 강연회에 참석했는데, 그 중 음향을 담당하던 기사는 강연회 후 방편법을 배우기도 했다. 참석자들 모두 강연회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호텔 지배인은 사장에게 동수들에



푸에르토 피리투 강연회 전날, 두 사저가 TV 마리나와 인터뷰를 한다.



푸에르토 크루즈 강연회를 마친 후 채식으로 식사를 대접하다.

게 무료로 단체명상 장소를 제공하시고 건의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신실한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참가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이 분명했다.

열흘 동안 두 차례 열린 강연회는 준비도 빠르고 진행도 만족스러웠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신의 안배로 인한 것이라고 믿는다. 신계선 또한 이를 통해 스승님과 인연이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 주셨다.



푸에르토 크루즈 강연회의 모습.

## 내면으로 출가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6.-18.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1

우리는 모두 출가승인 셈입니다. 걸어다니는 출가승이지요. 거리를 걷고 사람들과 섞여 있을 뿐, 사실상 출가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옛날에는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출가승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엔 아주 멀리까지 다니며 부처나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려면 생업이 없어야 했습니다. 탁발을 해야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흥법할 수 있으니 집에서도 출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출가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성(性) 에너지를 아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돌아다니며 법을 전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방을 다니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족과 성적 즐거움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생활은 출가자가 일을 할 때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출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철저히 이해했는지, 신을 찾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내면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말 깨달은 많은 재가자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또 우리에게겐 수승한 법문이 있기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신에 이르기 위해 육체적·정신적·감정적으로 자신을 혹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신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신은 너무나도 너그럽고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으니, 사랑하는 연인과의 작은 즐거움 정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출가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 말법시대에 얻은 수행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자

청하이 무상사/ 2001. 6. 9.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9

질문: 스승님의 한 강연집에서 까비르의 시, '사랑의 바다'에 대해 언급하신 걸 읽었는데요, 맞나요?

스승님: 예, 까비르의 시에 대해선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랑의 바다'는 어떤 내용이었죠?

질문: 최고의 신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트 푸르쉬(Sat Purush)라고 하던데,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화신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칼리 유가(Kali Yuga: 말법시대)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3세계 교주와 협상한다고 하지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법시대, 암흑시대예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내려와야 합니다. 크고 힘센 차가 있어야 하지요! (스승님 웃음)

질문: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쉽게 해탈할 수 있는 겁니까?

스승님: 예, 맞아요. 이미 알고 있군요. 물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기이니,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서 서둘러야 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토록 관대한 거지요.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비를 동반하는 허리케인처럼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내륙에 많은 비를 뿌리려면 태풍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의 비로는 어렵도 없지요.

따라서 지금은 '폭탄 세일' 기간인 셈입니다. 천국엔 방이 아주 많고 신의 은총도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지요.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대중 박수) 신은 원래 대단히 너그러운 분이긴 하지만, 이토록 관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기껏해야 천 명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습시다!

옛날에는 단체명상을 하려면 몰래몰래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암호를 사용하거나 비밀스런 악수를 주고받고, 무드라 같은 비밀스런 손동작, 혹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식의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동작(스승님이 성호를 긋는 동작을 하심)은 지혜안을 기억하고 오불을 외고 관음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고 나면 우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동수인지를 구분할 때 쓰던 비밀신호였지

요. 그 시대에는 예수도 숨어야 했고, 제자들도 모두 숨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히 공개적으로 스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서 남들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지요.

당시엔 부정적인 힘이 너무 강하고 압박이 너무 커서 예수처럼 위대한 사람도, 베드로처럼 헌신적인 제자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주 억압된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는 매우 운이 좋습니다.

## 우리는 가장 운 좋은 수행자이다

**질문:** 스승님, 죽은 뒤 다시 오지 않으려면 이생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합니까?

스승님: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십시오. 아니면 스승이 밀어 줄 겁니다. 당신의 등급이 어떻게든 죽을 때 스승은 그 등급까지 데려가 거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3세계는 넘어야 합니다. 다른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경우라면 3세계는 넘어서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의 법문을 수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높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게 여러분 잘못만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입문하고 내일 죽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육신을 떠나기 전, 혹은 스승이 육신을 떠나기 전 당신의 등급이 어디에 있었든, 거기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스승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천국에선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스승의 힘이 아낌없이 도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너그럽지요.

**질문:** 천 년 전과 비교해서 왜 이 시대만 이렇게 특별한가요?

스승님: 천국에서도 ‘폭탄 세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창고 대개방’의 경우처럼 모든 물건이 1달러입니다. 그건 어떤 스승이 내려오는가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승이긴 하지만, 어떤 스승은 이제야 막 기억하고 새로 깨닫기도 합니다. 또 항상 깨달아 있던 스승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한번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생에 처음 내려온 스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승은 늘 왔다갔다하면서 이 행성의 많은 중생들과 인연을 맺어 놓기도 하는데, 그(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인연 있는 옛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무엇을 원하든 들어주겠어요.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요!” (대중 박수) 아마도 우리가 오랜 친구여서 그럴 것입니다.

이제 막 내려온 스승은 중생들과 인연이 많지 않아서 소수의 제자들로 우선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음 번에 계속해서 내려오면 점점 늘어나게 되지요. 만일 그 스승이 이번 생에 처음으로 부처임을 기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의 깨



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두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세상의 관료적인 시스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소리 없이 도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지 등등을 수련해야 합니다.

이번 생에 깨달은 스승은 그런 것들에 대해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하고 시끌벅적하게 다닙니다. 그러다 어쩌면 3년 반이나 2년 반, 심지어 석 달 반 만에 사라질 수도 있지요. 물론 그 영적인 역량은 똑같이 우주에서 오는 것이지만, 제자들을 다루고 세상의 정치 권력을 다루는 방법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두뇌 차원의 것들로서 기술과 능력에 속하며, 깨달음이나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빨리 배우니까요. 하지만 그가 이미 세세생생 많은 경험을 쌓은 경우라면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겠지요.

한 사람이 한 생에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깨달았어도 자동차 설비나 비행기 조종, 항해, 실무회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등의 온갖 것들을 다 배울 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영혼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두뇌와 손, 육체로 배워야 이해하고 숙련될 수 있는 것들이지요. 만약 스승이 이 모든 것들과 ‘스승이 되는 법’을 다 배웠다면… 즉, 스승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라면 많은 일들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스승이라면 일을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의 요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법문도 같고 가르침과 힘, 진리도 같지만, 예를 들어 대중을 교화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가장 훌륭하고 빨리 진보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선 유능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이 같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법문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스승이 서로 다른 제자들에게 같은 법문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한쪽 제자가 다른 쪽 제자와는 다르게 진보하거나 빨리 진보할 수 있는 거지요. 또한 가르침을 스승이 어떤 식으로 제자들의 두뇌에 전달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두뇌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빨리 진보할 수 없습니다. 별다른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확신이나 자신감도 갖지 못하게 되지요. (대중 박수)

##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인다

질문: 스승님, 누군가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우릴 계속 공격한다면 그냥 받아야 합니까? 만일 그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승님: 오불을 외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의로써 그들을 무찌르세요. 적을 없애 친구로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되지요. 선

의와 사랑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면 모를까요. 설령 그런 경우라도 그들은 당신의 선의와 사랑을 느낄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이 그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의와 사랑으로 대하고 오불을 외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신이 그들을 깨닫게 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 늘 지혜안에 집중하라

질문: 어떤 비디오테이프에서 다른 사람의 지혜안을 바라보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더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안을 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로운움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스승님: 그때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혜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와 깨달음을 위한 영적인 중심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영적 기운을 발산하게 되고 그 상대 또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지요. 마치 분수대 옆에 서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물방울이 약간 얼굴에 튀어 시원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향수를 뿌린 사람 곁에 있으면 본인은 향수를 뿌리지 않았어도 향기가 조금 배이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중심, 진정한 자아를 기억할 때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로운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시

## 사랑의 바다를 항해하며

안 투이엣 사저/ 독일 함부르크 (원문 어울락어)

작고 연약한 배 한 척  
모래 해안에 갇혀  
피안(彼岸)을 향해  
떠다닐 수 없다네  
나 홀로 외로이 슬픔에 잠기네

그러다 어느 날  
쏟아지는 폭우에  
깨어나 보니  
바다로 밀려나고 있었네  
파도를 넘고 넘어  
내 배는 항해하네

밤이 되면  
노란 달빛이 반짝이고  
태양이 환히 밝아오면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네  
내 마음 행복에 겨워 노래부르고  
슬픔은 저 멀리 사라져 가네

피안을 바라보며  
작은 배는 흘러가네  
사랑의 바다 위를  
고귀한 관음의 바다 위를!



# 최고의 영적 의사

포모사 시후 장주

내면의 스승님은 가장 훌륭한 영적 의사입니다. 그분은 항상 나의 병세에 따라 가장 적절한 처방전을 내려 주신다.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서 내가 단 것을 먹고 싶어하면 오히려 스승님은 더 쓴 약을 주시기도 한다. 병이 좋아지고 나서야 이 쓴 약들이 정말 내게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뉴스잡지를 읽다 보면, 스승님께서 동수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도와주신 내용에 관한 기사를 종종 접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동수들로부터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꽤나 동떨어지게 느껴졌었다. 왜냐하면 내면의 스승님은 항상 내가 제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만 주시고 내가 애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선 무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도 그 한 사례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머니와 함께 종종 출가승들을 만나러 다니곤 했는데, 그때 그들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활기가 없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인상은 스승님께 입문한 후에도 계속 뇌리 속에 박혀 있었다. 나 자신의 천성 또한 고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두려워하며 단체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문한 후엔 고대의 은둔 수행자처럼 세상과 담쌓은 채 숨어서 수행할 생각이었다. 시후로 출가한다든가 장주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10년 간 발버둥을 쳐 봤지만 당초 혼자 숨어 수행하겠다는 염원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후 ‘대가족’의 일원이 되고 말았다. 정말 내 원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다.

시후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나는 이곳 생활이 얼마나 충실하고 재미있는지 알게 되었다. 좀더 일찍 들어오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였다.(나는 시후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자 장주였다.) 겉으로 보면 이곳 장주들은 다들 외모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이나 복장도 비슷비슷

해서 아무 재미도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개인마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강직하고 대담한 사람, 상냥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기지가 뛰어나고 적응이 빠른 사람, 재미있고 낙천적인 사람, 명하고 재미가 없는 사람 등등 이렇게 제각기 천차만별인 사람들과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겉보기엔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내적인 깨달음은 오히려 굉장히 풍부히 얻을 수 있다. 개개인을 조용히 관찰해 본다면, 모두가 각자의 수행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으며, 또한 좋은 공부거리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내면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진보하고자 신실하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행 환경인 것이다.

이곳 산 생활은 매우 바쁘지만, 경쟁으로 인한 압박이 없기에 심적으로는 매우 여유롭다. 일을 할 때도 일하고 있다는 생각 대신 매일 일어나는 온갖 상황을 통해 우리 스스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신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일이어도 마음 자세, 함께 일하는 동료에 따라 심적으로 얻는 깨달음은 완전히 달라진다. 때로 조용한 밤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나 자신을 반추할 때면 날마다 고쳐도 끝없이 나오는 결점들이 놀랍기만 하다. 하지만 이곳 시후 센터는 수행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는 무진장의 보물 창고다.

나의 아버지는 스승님을 뵈는 적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읽으신 적도 없지만, 어느 날 내게 “너의 변한 모습을 보니, 너의 스승은 부처 아니면 위대한 성인이



심에 틀림없구나.” 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스승님을 따라 몇 년 동안 수행하면서 나는 내면과 외면이 환골탈태했을 뿐 아니라 출가 생활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도 완치하게 되었다. 더 큰 행운은 완벽한 수행

환경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스승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에 대해선 그저 옛사람의 말을 떠올릴 뿐이다. “크나큰 은혜에는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하다. 은혜에 보답할 날만 기다릴 뿐이다.”



## 이생에서의 해탈

캐시 도일 사저/ 호주 노던 리버스·바이런 베이 (원문 영어)

나는 오랫동안 출가하겠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 길이야말로 수행을 빨리 진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승님의 안내를 통해 나는 그와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승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나의 이런 선입견을 없애 주셨다. 이를테면, 나는 센터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도 생활해 봤고, 또한 많은 동수들이 모여 단체명상을 하는 대도시와 몇 명의 동수만이 모이는 작은 시골에서도 모두 살아 보았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은, 스승님의 힘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나의 수행 진보는 내가 어디 살고 있든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깨달으려면 신실하고 헌신적인 마음과 자기 수련,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나는 이전에 집착했던, 출가해서 특정한 곳에서 수행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축복과 고양된 느낌을 얻기 위해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센터의 단체명상에 참석해야 한다는 관념도 극복하게 되었다.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생각과는 달리 작은 센터에서의 단

체명상에서도 고양되고 강렬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참석한 동수들의 순수함과 성심이 참석 인원 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밖에 나는 스승님께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경험을 안내하셔서 각 개인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짐’을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을 좀더 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나에게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이러한 체험이 바로 스승님께서 ‘일세해탈’과 ‘각자의 위치에서 천국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임에 틀림없다. 수행을 할수록 나의 선입견도 점점 사라졌고, 그 결과 갈등이 줄어들었으며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졌다. 스승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스승님의 힘도 그곳에 함께하며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정화하고 사랑해 주신다. 늘 간절히 원했었지만 한번도 얻을 수 없었던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신 스승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깨달은 스승의 집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지요. 내면의 세계에 집중한다면 어느 날엔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청하이 무상사/ 2000. 5. 17. 대한민국 서울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05

천국을 찾고자 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구도자에게 말했지요. “나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당신에게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작은 구덩이로 데려갔습니다. 그 속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 행복하게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말에 구도자가 말했지요.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여긴 그냥 땅속 어두운 동굴이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굴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앉아 있는 성인들의 내면에 있는 거죠!”

관음법문은 여러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은 천국이지요. 우리는 신으로부터 왔고 가장 위대한 창조의 근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여 여러분이 온 곳으로 서서히 돌아간다면 깨달은 스승들의 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창조된다(一切唯心造).”고 했습니다. 그러니 근원으로 돌아가 이 진정한 창조주를 만나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이고,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과 9대 조상도 하나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9대 조상을 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부처가 깨닫고 난 후 모든 중생이 이미 제도되고 해탈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 사이엔 스승과 제자라는 구분이 없으며 우린 단지 ‘하나’일 뿐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일부이고 우리는 모두 신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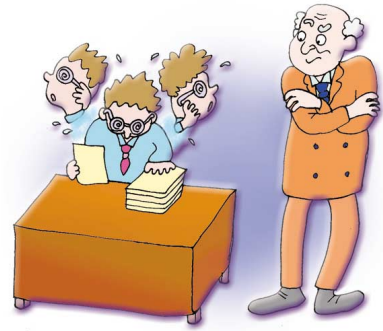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일체중생이 이미 내면으로 제도되었고 모든 이들이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하거나 입문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내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두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것을 말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평온함을 느끼고 생활과 인생에서의 정업도 비교적 원만하고 견딜 만해지며, 이 물질 세계를 떠날 때까지 좀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근시인 탓에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4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난 근시라서 직장에서 죽도록 일만 한다네.” 친구가 물었죠. “왜? 근시인 것과 죽도록 일하는 게 무슨 상관이지?” 그러자 그 남자의 말. “상사가 오는 순간을 전혀 알 수 없거든. 그러니 늘 열심히 일할 수밖에!”



## 정말 솔직한 이유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4

경찰관이 한 여자를 멈춰 세우고 물었습니다. “부인, 시속 50마일 구간에서 70마일로 달리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아요.” 그녀의 답변에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직하시긴 하군요. 그럼 왜 그렇게 과속 운전을 하셨어요?” 이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당신을 미처 못 봤거든요.”



## 인내심이 대단한 개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4

어떤 후진 마을에서 한 이발사가 길가에 천막을 치고 머리를 깎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왔다가 개 한 마리가 언제나 손님이 앉는 의자 밑에 웅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발사에게 물었지요. “당신 개인가요?” 이발사는 “아뇨, 매일 오긴 하지만 제 개는 아니에요. 누구네 개인지 모르겠는걸요.” 하고 대꾸했습니다. 이에 손님이 다시 물었죠. “당신 개가 아니면 먹이를 준 적도 없겠네요?” “그럼요.” “그럼, 대체 저 개는 뭐 하러 매일 여기 오는 거죠?” 손님이 또 묻자 이발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귀 한쪽이 안 떨어지려나 기다리는 거겠죠, 뭐.”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40/jkl.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40/jkl.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40/jkl.htm> (미국)



## 성탄을 맞아 예수의 가르침을 되새기자

존 모튼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원문 영어)

올해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나자렛에서 태어난 지 2002년째 되는 기념일이다. 그 생애와 가르침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예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는 보편적인 상징과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론 비기독교인들의 영혼과 심금을 울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12월 말에 동지를 경축했었다. 이때부터 기나긴 겨울밤이 점점 짧아지고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동지는 지구의 재탄생을 알리며 새해의 도래를 알리는 희망의 절기였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은 인류 최대의 희망, 다시 말해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화현하길 바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날 밤, 예수의 식구는 너무 가난해 집도 없이 떠돌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동물들이 가득 찬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 성스런 아이가 이처럼 물질적으로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일대 혁신적인 사건으로, ‘물질적인 부는 결코 영성의 높고 낮음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별자리의 이동을 통해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된 세

명의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찾아와 선물을 바쳤다. 선물을 주는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느끼는 기쁨을 연상시키곤 한다. 축복받은 이 아이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자연스레 함께 경축하는 자리가 형성되었는데, 함께 모여 경축하는 시기에 있어선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겨울철이 제격이었으리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계 어디서나 이처럼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날을 경축한다.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박애에 대한 그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세상이 전쟁과 불안의 분위기로 치달고 있는 시점에선 그 가르침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의 관음 수행자들은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자신의 신성(神性)의 기원을 깨닫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살아 계신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이 천부적인 자신의 신성과 사랑을 기억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

## 베룩과 나눔의 시간

리쉬다 해리스 사저/ 미국 워싱턴 시애틀 (원문 영어)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웃음, 빛과 음악으로 충만한 날이며, 또한 축제와 나눔의 시간이기도 하다.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그 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베룩과 나눔의 시간이란 의미가 더 강하다.

하지만 21세기의 크리스마스는 상업주의와 마스크



의 발빠른 행보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상점이나 인터넷 쇼핑몰로 몰려들어 선물을 골라 친척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보내 놓고는 혹시 빼먹은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는 형식적인 의식으로 변질됨으로써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2천 년 전 세상에 희망과 구원을 전하러 오신, 인류 최대의 '선물'인 한 깨달은 성인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나는 아직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촛불을 들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 사람들을 천상으로 이끌었던 소년 성가대의 모습이 또렷이 기억난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맑고 아름다워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었고, 촛불의 불빛은 작은 '성령의 빛' 처럼 어둠 속에서 춤추며 주위를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인도했다. 영성을 높이 고양시키던 축제, 내게 있어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이었다.

개개인이 갖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아마 서로 다를 것이다. 누구에게는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휴일일 것이고, 누구에게겐 가족을 만나는 날, 아니면 애인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나가거나 쇼핑을 하는 때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늘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운 느낌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의 본래 정신인 축하와

환희, 베품과 나눔의 시간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수년 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환자와 노인에게 캐롤을 불러 주는 모임에 참여해 행복을 전해 주고자 노력도 했었고, 때로는 많은 가정에 기쁨을 전하러 가가호호 방문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값비싼 선물보다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승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에 내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각별해졌다. 스승님의 사랑이 가져다 주신 기쁨과 행복은 모든 성탄 의식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준다. 그래서 촛불은 더욱 밝게 빛나고 음악은 더욱 감미로우며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선의 또한 더욱 의미 깊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렇게 영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 감로법어

청하이 무상사/ 1995. 10. 31.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09

우리가 지키는 모든 계율은 육체·정신·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순수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의 습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통제해서 그에 팔려 가거나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아선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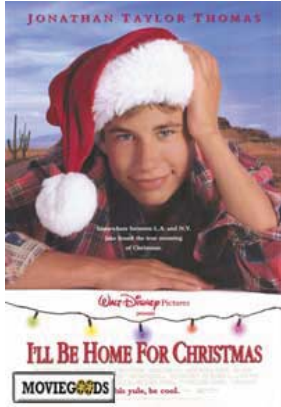
청하이 무상사/ 1990. 6. 24.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지혜는 계발될 수도 있지만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식이나 지혜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면 그 지혜는 점점 더 밝아지고 보다 완전히 계발될 것입니다.



##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캐시 도일 사저/ 호주 콥스 하버 (원문 영어)



1998년 월트 디즈니사의 출품작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I'll Be Home For Christmas)’는 18세의 제이크 윌킨슨이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집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다. 영화 전반에 걸쳐 제이크의 행동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건 분명하지만, 이 코믹한 여행이 끝날 무렵, 늘 자기만 생각하던 제이크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제이크의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동안 아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나머지, 만약 제이크가 크리스마스 때에 맞춰 집에 온다면 선물로 집안의 고급 포르쉐를 주기로 약속한다. 이에 제이크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차를 갖기 위해서 서둘러 집을 향해 출발한다.

그러나 반 친구의 못된 장난으로 인해 그는 여행 길에 오르기도 전에 강력 접착제로 붙여진 산타클로스 복장에 하얀 수염을 단 채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오도 가도 못 하게 된다. 결국 땀 한방울 없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힘들고도 유쾌한 여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가는 도중 그를 산타클로스라고 여겨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으로 바로 가지도 못한다. 그들을 돕는 게 제이크의 주 임무가 되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제이크는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결국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따르게 된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다. 이 영화에선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열을 올리는 모습들이 꽤나 적나라하다! 당초 제이크의 여행 동기가 이기적인 것이긴 했지만, 신은 그에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이크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 중 겪는 색다른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움과 나눔’이라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된다.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는 프랑스 시인 겸 화가

## 안느 클레르 데플레츠와의 인터뷰

(원문 불어)

예술에 대해 말할 때면 흔히 프랑스를 떠올린다. 프랑스는 위대한 예술가들을 수없이 배출한 아름다운 나라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배워 가는 과정에서, 혹은 전문 활동 중에 진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훌륭하고 감동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철학과 심리학, 심지어 영성 분야까지 열심히 탐구하곤 한다.

프랑스의 안느 클레르 데플레츠(Anne-Clair Despretz) 사저도 바로 그런 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파리 베씨에르 국립 고등 예술학교를 졸업한 뒤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나중에 대중들에게 미치는 회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수차례의 개인전과 공동 전시회에 참여해 온 그녀는 화려한 수상 경력과 그 예술적 재능으로 인해 프랑스 예술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그림 세계와 구도의 과정,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변화된 가정 생활에 관한 얘기 등을 들려주었다.



그림 1

질문: 안느 씨, 화가를 직업으로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성장하면서 예술작품을 통해 무수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걸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마치 사람들의 두뇌를 통과해 잠재의식, 마음으로 메시지를 바로 전달해 주는 지름길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림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당신의 작품은 흑백의 인물 스케치와 다양한 색채의 추상수채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안느: 제가 검정과 흰색을 대비해서 쓰는 것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발산하는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흰 종이에 검정 잉크로 글을 쓰면 매우 분명하고 명료해지듯 그런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 속에 미소짓다...’라는 이 동판화의 노부인을 보면,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서 햇빛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그림 속에 담긴 기쁨과 빛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림 1)





# 예술과 영성



그림 2



그림 3

다른 한편으로 색채가 분명한 추상 수채화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를 통해서 저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풍의 그림을 그리느냐고요? 우리의 왼쪽 뇌는 논리적 사고와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영역에 속하는데, 그 부분은 흑백 스케치와 잘 맞습니다. 반면 직관을 관장하는 오른쪽 뇌는 자유 분방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성적 영역이므로 색채가 뛰어난 추상수채화와 잘 맞다고 할 수 있지요. 가장 좋은 건 양쪽 뇌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화풍은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빛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와

자연의 진동을 느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추상화를 예로 들어 보지요.(그림 2) 이 그림 속의 선들은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통과하는 듯한 빛줄기는 활동 중에 있는 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자연의 끝없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림 맨 아래에 있는 시는 제가 쓴 건데, 빛과 음악에 감싸여 성장하는 만물에 대해 묘사한 거지요. 저는 가끔 시에 곡을 붙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제 창작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찬란한 신록'입니다.

찬란한 신록  
빛의 파편  
작은 음악  
혹은 바람의 웅얼거리는 목소리  
감미로운 소리, 영원으로 이어지고  
대지를 가로질러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노라  
경쾌한 그 몸짓은  
영원토록 푸르려  
시간을 초월하는구나

이쪽 수채화는 아주 독특하지요. 인간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들로 이뤄져 있는데, 말하자면 아주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그림 3) 이 그림을 그린 후 저는 그 각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어 확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그림 4) 재미있는 것은, 그 사진들을 전시했을 때 관객들은 이것들을 독립적인 작품으로만 여길 뿐, 그것이 원래 하나의 작품에서 나왔다는 건 모르더라 겁니다. 이렇게 세트 작품을 만든 것은 우리가 어떤 공간, 어떤 삶으로 스스로를 한정지으면서도 실제로 다른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은 잊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끝없는 바다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관대해질 때 전 세계와 온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어떤 저서에서 '만물동일체(萬物同一體)'의 개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지요.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우연히 어떤 책에서 이 구절을 보곤 이 그림과 함께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만물동일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우주라고 하는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문다. 각





# 예술과 영성



그림 4



그림 5

개인은 자신의 존재와 사고 및 감각이 자신 외의 모든 존재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인식하지만, 이것은 의식의 시각적인 환각이다. 이러한 환각은 감옥처럼 우리 자신을 물질적 욕망에 가두고, 가까운 관계로만 그 사랑을 제한시킨다. 우리의 임무는 자비심을 확장시켜 모든 생명과 눈부시게 빛나는 대자연을 감싸 안음으로써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전설은 왜 거짓된 동화란 말인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은 특수 원료를 사용해 ‘전설과 신화가 우리의 생각처럼 허구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주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정면에서 보면 표면의 도안만 보이지만, 각도를 달리하면 숨어 있던 금빛 입자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고, 다른 방법, 다른 각도를 통하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림 5)

**질문: 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느: 저는 어릴 적부터 인간에겐 영혼이 있고, 영혼은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알 수 없는 건 생각지도 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그리 나쁜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 사고를 통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인 방면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차츰차츰 알게 되었지요. 사람들에게서 제 의문에 대한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할 때마다 저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어요. “어른이 되면 반드시 피상적인 현상에 숨어 있는 진리를 찾고 말 거야.”

그러다 그 답을 찾아 열렬히 헤매던 20대의 어느 날, 하늘에서 빛나는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꿈은 아니었어요. 거의 그 문을 통과해서 제가 원하기만 하면 문 저편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니, 아니야!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곤 어딘가쯤에서 그 문을 닫아 버렸지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내적인 체험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특이한 체험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낙담한 저는 수행의 길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지요.

저는 오로지 명상을 통해서만이 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됐고, ‘이 세상엔 이 모든 걸 설명해 주고 나를 도와주며 명상을 가르쳐 주실 분이 분명히 계시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저에게 있어서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지요. 저는 살아 있는 참스승은 매우 친화력 있고 긍정적이어야 하며, 제게 그 어떠한 물질적인 조건 없이 오직 신실하게 수행할 것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갈망이 커지고 있을 때 문득 어떤 영성 잡지에서 작은 광고를 보게 됐어요.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올바른 수행 방법을 제공합니다.’란 구절이었지요. 제가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란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고 내적 체험으로도 긍정적인 답을 얻었기에, 파리 센터에 연락해 자료를 조금 얻었습니다. 나중에 스승님의 책도 한 권 샀는데, 읽어 보니 평



그림 6



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의 가르침은 정말 완벽했고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저는 저 자신이 진리의 정수에 이르는 길의 출발점에 서 있으며, 그 길엔 수많은 보물이 발견되지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스승님께 입문하고 관

음법문을 수행하게 된 것이지요.

입문한 후 명상할 때면 영감이 종종 솟아옵니다. 심지어 때로는 미래의 작품을 ‘보기’도 하고, 시 구절이나 음악 가락을 ‘듣기’도 합니다. 이 작품도 명상 중에 떠오른 영감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그림 6) 이 작품은 마치 상자에 담긴 책처럼 보이는데, 안쪽엔 거울이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제가 쓴 시가 끼워져 있습니다. 양쪽 거울에 비친 상은 종종 얹히고 설키는 인간의 삶과 같은 것으로서, 물질 세계는 진짜 세계를 반영한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 상자에 표시된 작은 총알과 장미 문양은 각각 이세상의 전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고삐도 없이 날뛰는 황소의 등에 온 신경을 모아 매달려 있는 아이를 그린 스케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진아를 찾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달리 말해 진아를 찾는다면 우리 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 한쪽엔 찬란한 빛줄기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엔 ‘이 거대하고 무한한 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글귀가 써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아직 이 친숙한 빛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의 내적 자아가 물어보는 기나긴 시입니다.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선 저와 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 질문: 가족들도 모두 입문했나요?

안느: 남편과 두 아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입문했어요. 딸만 아직 너무 어린 탓에 입문을 못 했는데, 지금 애타게 입문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매우 평화롭고 자연스러우며 또 많은 일들이 순탄해지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물론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 칭하이 스승님의 노고 덕분이지요!

## 시인 겸 화가인 안느 클레르 데플레츠의 최근 수상 경력

\*1996년 15,000명의 참가자 중 프랑스 니오르 시(市) 부공 미술관에서 개최한 ‘현대예술 전시회 90인전’에 선정.

\*199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시(市)에서 주최한 ‘국제 회화전’ 대상 수상.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2002 예술과 시 국제전시회’ 초청.

이 인터뷰는 SUN TV의 ‘예술과 영성’ 제11편에서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프랑스)

# 사랑의 실천

## 프랑스 소식

### 프랑스 남부 수재민 돕기



[파리] 2002년 9월 8일과 9일 양 일  
간 엄청난 홍수가 프랑스 남부 일대를  
덮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20여 명  
이 죽는 피해를 낳았다. 어떤 지역은 3  
미터 높이까지 침수됐고, 폭풍우의 여파

로 많은 마을에서는 며칠씩이나 물과 가스, 전기, 전화가 두절되기도 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파리 센터는 이 홍수 소식을 듣고 수재민을 돕기 위해 즉시 알레스(Ales) 시 홍수  
대책위원회에 1천 유로를 성금으로 전달했다.

감사 편지 

### 프랑스 공화국 알레스 시

(원문 불어)

2002년 10월 3일

수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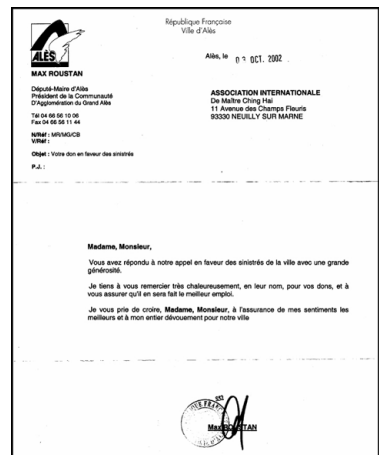
93330 뇌이유 쉬르 마르느 샹플뢰리 가(街) 11번지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알레스 수재민 돕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특히 수재민들을 대신해 저희에게 보내 주신 여러분의 성금에 깊  
은 감사를 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심을 담아





# 사랑의 실천

## 포모사 타이베이 소식

### 사랑으로 타이베이를 밝히다!

#### - 영성 서적 기증 행사 보도



타이베이 단체명상 모임에서 책 박스를 풀고 있는 작업 팀(위)과 전달할 책을 정리하고 있는 동수들의 모습(아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주관 아래 타이베이 센터는 2002년 9월 4일 ‘사랑으로 타이베이를 밝히자!’라는 기치 아래 영성 서적 기증 행사를 펼쳤다.

행사에 앞서 동수들은 먼저 스승님의 책을 기증받고 싶어하는 타이베이 지구 도서관의 숫자를 파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직접 해당 도서관으로 책을 배달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동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각 도서관으로부터 예상을 웃도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10년이 넘도록 스승님의 경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의 출판물을 타이베이 소재 도서관에 기증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연구원 도서관을 비롯해 타이베이 시립도서관, 타이베이 현립도서관, 국립대만대학 도서관, 사범대학 도서관 등 수십여 곳이 스승님의 출판물을 소장한 상태이며, 많은 동수들이 이들 도서관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입문까지 하게 되었다.

이번 도서 기증 행사는 지난 십수 년 간 열린 행사 중 가장 규모가 컸는데, 200명이 넘는 입문자가 참여해 총통실과 중앙정부 5대 부처를 비롯한 각급 정부기관, 연구소, 종교 단체, 병원, 군사 기관, 각급 학교, 그리고 기타 공립 및 사립 도서관 등 대략 1,100여 군데에 1만 권이 넘는 경서를 기증하였다.

국회도서관 관장인 꾸민 교수는 동수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친구들이 진정한 용사이자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지혜를 헌신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성과 지혜 방면의 이로움을 가져다 주면서도 명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가능한 한 그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그들을 지원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스승님께서서는 ‘보시 중 법(法) 보시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은 타이베이 지구 도서관들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기증하는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대중들이 진리의 소식을 접할 기회를 더욱 더 많이 갖고, 스승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 주시어 무한한 혜택을 입을 것이라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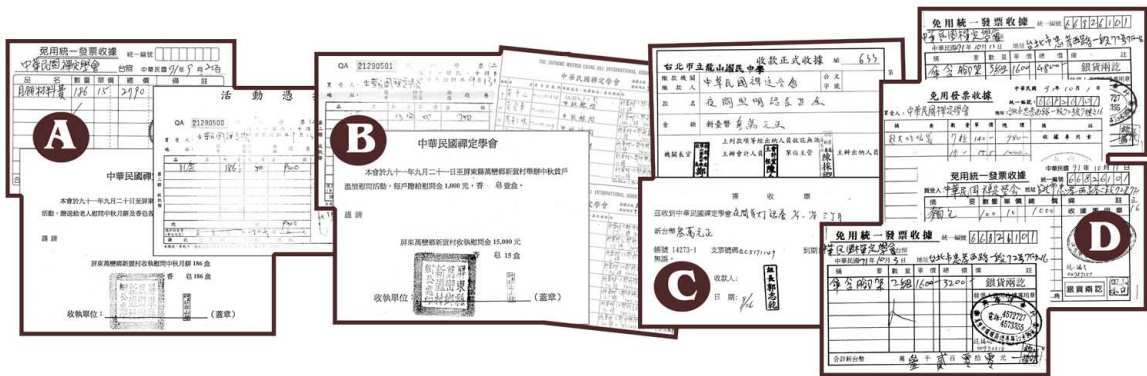
‘사랑으로 타이베이를 밝히자!’ 도서 기증 행사는 각 도서관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 사랑의 실천

표1: 2002년 9월에서 10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 내역 (단위: NT\$)

장 소	날 짜	활 동 내 역	금액	부록
핑둥	2002. 9. 20.	핑둥 완루안 향 신츠 마을 노인들에게 중추절 선물	12,090	A
핑둥	2002. 9. 21.	핑둥 완루안 향 신츠 마을 빈곤가정에 중추절 선물과 성금 전달	15,750	B
타이베이	2002. 9. 26.	타이베이 통산 중학교 야간 조명 시설 유지비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30,000	C
타이난	2002. 9. 26.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 대상으로 영성 비디오 강연회 개최(동수 지원)	0	
지룽	2002. 10. 12.	지룽 시 환경보호국과 협력, 지룽 빠토즈 해변 청소	10,980	D
미아오리	2002. 10. 13.	시후 향공소와 협력,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동수 지원)	0	
핑둥	2002. 10. 23.	핑둥 교도소 방문, 영성 강연회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10. 23.	밍더 개방교도소 방문, 영성 강연회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10. 24.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동수 지원)		
총 계			NT\$ 68,820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중추절을 맞아 핑둥 완루안 향 신츠 마을의 노인들과 어려운 가정에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타이난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영성 강연회를 개최하다.

# 사랑의 실천

표2: 2002년 9월에서 10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가정 돕기 지출 내역(단위: NT\$)

	2002년 9월		2002년 10월		
장 소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부 록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7	18,000	7	20,7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쭈	1	3,000	1	3,000	4
타이쑹	5	17,000	5	17,000	5
난토후	6	23,000	6	23,000	6
지아이	3	8,000	3	8,000	7
타이난	1	4,000	1	4,000	8
까오슝	3	10,000	3	10,000	9
핑퐁	3	10,000	3	10,000	10
타이퐁	3	10,000	3	10,000	11
평후	2	5,000	2	5,000	12
소 계	36	NT\$ 112,000	36	NT\$ 114,700	
총 계	NT\$226,700				



표1, 표2에서 보이듯이 2002년 9월과 10월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액은 총 295,520 NT\$ (미화 약 8,565.80달러)에 달한다.

매체 보도

## 살생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며

### ‘떠돌이 애완동물 만들지 않기’ 회의

진 미니엘 사처/ 미국 조지아 센터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동물 이야기』 잡지 기사에서 발췌 (원문 영어)



2002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약 350명의 동물 보호론자와 20여 명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쉐라톤 애틀랜타 호텔에서 모여 ‘떠돌이 애완동물 만들지 않기’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동물 수용소에 있는 모든

동물을 보호하고, ‘떠돌이 애완동물 만들지 않기’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동물 수용소에 있는 모든

개와 고양이들에게 집을 찾아 주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회의를 시작하며 ‘최고의 친구들 동물 보호소’ 소장인 마이클 마운틴 씨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전역에 걸쳐 떠돌이 애완동물 살생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각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운틴 소장에 이어 주제를 발표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최대 동물 관리 및 입양 중개회사 이사인 애드 박스 씨, 국내 최고의 들고양이 번식 조절 전문가인 베키 라빈슨 씨, 샌프란시스코를 살생이 없는 도시로 만든 데 이어 현재 매디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리처드 어벤지노 씨 등. 이 중 매디스 기금은 미국 내 동물 살생 중지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조성된 자산규모 2억 달러 상당의 재단이다.

공개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 전문가와 떠돌이 애완동물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상호 연맹 구축,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 판매, 특별 입양 이벤트 주최, 개와 고양이 생식 기능 제거 수술 시술, 동물 보호 기구를 위한 기금 마련, 대중적인 인지도의 확산 등이 주요 논제로 토의되었다.

‘떠돌이 애완동물 만들기 않기’ 회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최고의 친구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최고의 친구들’ 웹사이트 주소: [www.bestfriends.org](http://www.bestfriends.org)

주: ‘최고의 친구들 동물 보호소’는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 미국 최대의 동물 수용소로, 현재 1,500여 마리의 고양이와 개, 기타 애완동물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애완동물들의 입양과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애완동물의 생식기능 제거 수술을 해주고 동물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동물 애호가들의 상호 연결을 돕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떠돌이 애완동물 만들지 않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고의 친구들』이란 잡지도 발행하고 있다.

## 동물 보호를 지지한 표결

진 미니엘 사저/ 미국 조지아 주 (원문 영어)

2002년 11월 5일 열린 투표에서 미국 5개 주의 수백만 명이 동물 보호 법안을 지지했다.

애리조나 주에선 날로 늘어가는 그레이하운드 경주 도박에 대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도박으로 인해 매년 수천 마리의 그레이하운드가 학대받고 죽어 간다.

또 플로리다 주에서는 돼지들이 승리를 차지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제10조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내 최초로 농장 및 목장에서의 동물 감금을 불법 행위로 선포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수태 중인 돼지를 움직일 수조차 없이 비좁은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금지된다.

조지아 주의 투표자들은 버려진 개와 고양이 수만 마리의 안락사와 생식기능 제거 수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동차 면허증 발급에 동의했다. 현재는 20개 주

에서 동물의 과다 증가와 그에 따른 동물들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오클라호마 주는 이번 표결로 닭싸움을 금하는 48번째 주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시 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주에서는 반(反)동물 보호적인 제안도 한 가지 부결시켰는데, 이를 위해선 동물 보호 법안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일요일에 6개 지역에서 사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안이 부결되었다.

이러한 승리들이 앞으로 동물들에 대해 보다 자비로운 개혁안이 시행될 것임을 알리는 시작이길 희망해 본다.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qyitv.com>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khoda.fsnet.co.uk/godsdirectcontact> (영연방-페르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b>앙골라</b>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b>베닌</b>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b>카메룬</b>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b>가나</b>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b>케냐</b>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b>모리셔스</b>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포트 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b>남아프리카공화국</b>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케이프 타운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더반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b>토고</b>	센터	228-4-410-948 228-2-222-864 smtogo@yahoo.com
팔리메	센터	228-2-215-551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b>우간다</b>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b>아르헨티나</b>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부에노스 아이레스		
★ <b>볼리비아</b>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산타 크루즈	Mr. Wu Chao Shien	591-4625964
트리니다드		
★ <b>브라질</b>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벨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레시페		
상 파울로		
★ <b>캐나다</b>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몬톤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h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팬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99@shaw.ca 1-604-439-6753 gycontactperson@yahoo.ca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Ms. Laura Chen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시티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Ms. Maritza E.R. de Leone	507-236-7495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미국		
에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edj@cox-internet.com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b>노스캐롤라이나 :</b> Mr. & Mrs. Huynh Thien Tan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b>오하이오 :</b> Mr. & Mrs. Vu Van Phuong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Gilbert Rivera	ohiocenter@yahoo.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1-937-746-3786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b>오클라호마 :</b> Mr. & Mrs. Tran Kim La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1-405-632-1598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b>오리건 :</b>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b>*포틀랜드</b>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thanhgiang1990@yahoo.com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b>콜로라도 :</b>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b>플로리다 :</b>					orcenter@hotmail.com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b>펜실베이니아 :</b> Mr. & Mrs. Diep Tam Nguyen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Hill@comcast.net			1-610-352-7787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b>조지아 :</b>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b>텍사스 :</b>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b>*오스틴</b>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센터	1-512-396-3471
<b>하와이 :</b>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 Dean Duong Tran	jjdauw@yahoo.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1-512-989-6113
<b>일리노이 :</b>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b>*달라스</b>		
	Mr. Sang-Yoon Lee	1-773-275-6134 ilovesuma@yahoo.com		센터	1-214-339-9004
<b>인디애나 :</b>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Mr. Tim Mecha	DallasCenter@yahoo.com
<b>켄터키 :</b>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Weidong Duan	1-972-395-0225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Mr. Jimmy Nguyen	1-972-517-5807
<b>루이지애나 :</b>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water96@yahoo.com
<b>메릴랜드 :</b>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1-972-206-2042
<b>메사추세츠 :</b>			<b>*휴스턴</b>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센터	DallasCenter@hotmail.com
	Ms. Gan Mai-Ky	1-508-791-7316			1-281-893-8300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Ms. Carolyn Adamson	CHINGHAI_TX@sbcglobal.net
<b>미시간 :</b>	센터	1-248-370-2924 smmicenter@yahoo.com			1-713-6652659
<b>미네소타 :</b>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cadamson@houston.rr.com
<b>미주리 :</b>					1-281-251-8812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 Mrs. Robert Yuan	DNgyuen376@ao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b>*샌 안토니오</b>		
<b>네브라스카 :</b>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Mr. Khoi Kim Le	1-210-558-6088
<b>네바다 :</b>					lethong@hotmail.com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b>버지니아 :</b>		
<b>뉴저지 :</b>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센터	1-703-941-0067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b>뉴멕시코 :</b>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anhhlly@hotmail.com
<b>뉴욕 :</b>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b>*버지니아 비치</b>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b>워싱턴 :</b>		
			<b>*시애틀</b>		
				Mr. Ben Tran	1-425-643-3649
				Mr. Edward Tan	benptran@aol.com
					1-206-228-8988
				<b>*와이오밍</b>	edtan@usa.com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b>★ 푸에르토리코</b>		
			<b>카위</b>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b>***아시아***</b>		
			<b>★ 포모사</b>		
			<b>타이베이</b>		
				센터	882-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Mr. & Mrs. Loh, Shih-Hung	0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b>미아오리</b>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b>★ 홍콩</b>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b>★ 인도</b>		
			<b>뭄바이</b>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캄보디아	Mr. Ashok Sinha	trust_god@rediffmail.com
★ 인도네시아		91-33-655-6741
발리	센터	62-361-231-040
	Mr. Agus Wibawa	smch_bali@yahoo.com
		62-81-855-8001
자카르타	센터	wibawa001@yahoo.com
		62-21-6319066
	Mr. Tai Eng Chew	smch-jkt@dnet.net.id
	Ms. Lie Ik Chin	62-21-6319061
		62-21-6510218
	Ms. Murniati Kamarga	finance1@ueii.com
		62-21-3840845
	Mr. I Ketut P. Swastika	hai@cbn.net.id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1-7364470
		62-293-367-031
말랑	Mr. Judy R. Wartono	irn_up@yahoo.com
		62-341-491-188
	Mr. Henry Soekianto	yudi_wartono@telkom.net
	Mrs. Merlinda Sjaifuddin	62-341-325-832
		62-61-4514656
수라바야	센터	smch_medan@hotmail.com
		62-31-5612880
	Mr. Harry	ahimsasb@indosat.net.id
		62-31-594-5868
	Mr. Augustinus	harry_l@sby.dnet.net.id
		62-274-588-105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t.adianingtyas@eudoramail.com
		972-9-866-6881
		ya@bezeqint.net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ath.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l@kornet.net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유태인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콜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 몽골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마닐라 센터		632-842-8828

## ★ 필리핀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lawrance@thefinance.lk

##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센터	66-43-378112
	송크라	66-74-447224

##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0031-6-11-240-115
		gotske@yahoo.fr

##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 덴마크

★ 핀란드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헬싱키		hoanghanh@jippii.fi
	gu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 스웨덴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파리	센터	33-1-4300-628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스위스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체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 독일					Ms. Klein Ursula	41-22-3691550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 영국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ngoc-thao.nguyen@gmx.de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serve.co.uk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l.wellers@ntlworld.com
민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스코틀랜드		
★ 그리스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오세아니아 ***		
★ 네덜란드				★ 호주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 헝가리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Lux Tamas	36-309-611994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Ms. Dora Seres	36-1379-1924		마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아일랜드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 노르웨이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 폴란드				퍼스	센터	61-8-9242-1189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포르투갈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 뉴질랜드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 러시아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Mrs. Chang-Wu Wong	649-534-0986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 스페인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해밀턴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Ms. Lidia Kong	34-91-5470366		넬슨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디자이너: 청하이 무상사

## 다양한 형태의 양면 겸용 조끼

부드러운 폴라리스(벨벳 질감을 낸 100% 폴리에스테르)와 면 소재로 만든 이 다양한 형태의 양면 겸용 조끼는 가볍고도 따뜻하다.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색상을 넣어 다양한 색상에 맞춰 입을 수 있다. 폴라리스로 된 면에는 SM 로고가 새겨진 실크 소재의 장식 띠가 둘러져 있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중성적인 디자인이라 남녀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날씨에 따라 안팎으로 옷을 덧입거나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이 옷은 가을과 겨울철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서는 칼라와 접히는 칼라, 두 가지 스타일에 다섯 가지 색상 조합이 있다.

빨간색 면 · 군청색 폴라리스, 네이비 블루 면 · 하늘색 폴라리스, 초록색 면 · 연두색 폴라리스, 연녹색 면 · 연노랑 폴라리스, 자주색 면 · 분홍색 폴라리스 등.

연하고 진한 대비색의 배색으로 다채롭고 우아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 사랑의 발자국

야광 동수/ 포모사 (원문 중국어)

나  
당신 따라 움직입니다  
세계의 중심,  
우주의 사랑의 근원인 당신을...

당신의 사랑  
무소부재하시어  
당신과 함께하면  
극락과 기쁨뿐

나  
당신 따라 움직이고  
천국도  
당신 따라 움직입니다  
그 사랑의 발자국  
전쟁의 불길을 꺼뜨립니다

나는 사랑의 신발 한 짝  
당신의 발 아래  
나를 두소서  
당신과 하나 되도록...

주: 스승님의 1999년 유럽 순회강연 당시 나는 흥법 팀으로 일할 영광을 얻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을 때 영감을 받아 이 시를 쓰게 되었다. 유럽 사람들이 코소보 전쟁으로 비탄에 잠겨있던 당시, 스승님의 방문은 때마침 내린 감로수처럼 활활 타오르던 전쟁의 불길을 순식간에 꺼뜨리셨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순회강연이 끝나는 날 저녁, 코소보 전쟁 양 당사국이 평화 협정에 조인했던 것이다. 순회강연을 하는 동안 스승님으로부터 이 신성한 사랑의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기를 되찾았고 구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 평화의 길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

영문, 중문판 출간!

1999년 코소보에 불붙은 전쟁으로 인해 발칸 반도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아졌고, 공포와 불안이 지구를 엄습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칭하이 무상사는 여행에 따르는 온갖 위험을 무릅쓴 채, 유럽 18개국 수도를 돌며 신의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헌신적이고 자비로운 수락은 수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새로운 희망의 서광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18개국을 순회하며 들려주셨던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번에 이를 책으로 엮어 전세계인들에게 선사하게 되었다.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교류』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전쟁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상술하는 한편,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른 길을 따르기만 하면 세계의 미래를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한 힘이 실려 있다! 이 외 스승님은 구도과정 중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 궁극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의 환희심 나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전에는 한번도 거론된 바 없었던 많은 우주의 신비들, 이를테면 천국과 지옥의 진상, 우주의 진화, 지구의 고대 문명이 멸망한 원인 등에 대해서도 밝혀 주셨다. 책의 마지막 장엔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의 400년 전 예언이 실려 있다. 한 위대한 동방의 여자 스승이 세상을 재앙에서 구할 것이라는 이 예언엔 놀랍게도 스승님의 이름과 생애까지 언급되어 있다.

시기 적절하게 출간된 이 강연 모음집은 스승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 있어 동수들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훌륭한 양서가 될 것이며, 친척과 친구들을 위한 수행 선물로서도 안성마춤이다.

GOD'S DIRECT CONTACT  
THE WAY TO REACH PEACE



和平之道 直接和上帝連線

乐有岛昂拉德山由光師  
大虎馬德爾全圖德  
馬德爾和馬德  
齊海島土師

